

#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 현황 분석 및 미래 정책방향

Suggestions for Policy Directions of Cultural Regeneration in Gwangju City

민 인 철

2019년  
정책과제



---

## | 차 례 |

---

요약 .....	i
I. 서론 .....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4
3. 연구방법 .....	4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II. 문화재생 관련 논의 및 정책 개념 .....	9
1. 문화적 재생 관련 담론 .....	9
2. 문화적 재생 정책 개념 .....	14
III. 정부의 문화재생 정책 현황 .....	19
1. 문체부 새문화정책과 문화재생 .....	19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	21
3. 2018년 문화적 도시재생 예비사업 .....	23
4.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	26
IV.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 현황 분석 .....	33
1. 소촌아트팩토리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	33
2.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	34
3. 1913송정역시장 재생 .....	35
4. “빛나는 청춘발산” 마을재생사업 .....	36
5. 대인예술시장 .....	37
6. 양림동 창작공간 조성 .....	38
7. 정책 시사점 .....	39

V. 국내외 문화적 재생 사례 분석 .....	43
1. 국외사례 .....	43
2. 국외사례 종합 시사점 .....	48
3. 국내사례 .....	48
4. 국내사례 종합 시사점 .....	55
VI.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59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59
2. 의견조사 결과 분석 .....	96
3. 정책 세미나 주요 결과 .....	106
VII.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정책 방향 및 추진단계 .....	111
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	111
2.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	116
3.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정책방향 .....	120
4. 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사업구조 모델 .....	121
5.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 단계 .....	123
6.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정책 방안 .....	123
참고문헌 .....	131

## | 표 차 례 |

〈표 II-1〉 문화적 지역재생의 사회적 배경관련 주요 논의 내용 .....	9
〈표 II-2〉 문화적 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주요 내용 .....	10
〈표 II-3〉 문화적 재생 개념에 대한 논의 .....	11
〈표 II-4〉 문화적 재생에서 제시되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속성과 해석 범위 .....	12
〈표 II-5〉 문화적 재생의 기본 속성에 대한 논의 .....	13
〈표 II-6〉 문화적 재생의 전개유형에 대한 논의 검토 .....	14
〈표 III-1〉 ‘문화비전2030’의 3대 방향과 9대 의제 .....	19
〈표 III-2〉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의제 세부 내용 .....	20
〈표 III-3〉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현황 .....	21
〈표 III-4〉 사업 대상지 현황 .....	23
〈표 III-5〉 천안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주요 성과 .....	24
〈표 III-6〉 전북 신흥동 말랭이마을의 오늘 .....	24
〈표 III-7〉 포항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주요 성과 .....	25
〈표 III-8〉 부산 영도 갯강이 A&C(아트 앤 커뮤니티) 프로젝트 .....	25
〈표 III-9〉 사업 대상지 현황 .....	26
〈표 IV-1〉 소촌아트팩토리 시설현황 .....	34
〈표 VII-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내용 .....	116
〈표 VII-2〉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내용 .....	120

## | 그림 차례 |

〈그림 I-1〉 연구 수행 절차 .....	5
〈그림 III-1〉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추진체계 .....	28
〈그림 IV-1〉 소촌아트팩토리 시설 .....	33
〈그림 IV-2〉 시화 문화마을 전경 .....	34
〈그림 IV-3〉 송정역시장 전경 .....	35
〈그림 IV-4〉 청춘 발산마을 전경 .....	36
〈그림 IV-5〉 대인예술시장 별장 프로그램 .....	37
〈그림 IV-6〉 양림동, 전시공간 .....	39
〈그림 V-1〉 드 꺼블 메타볼릭 랩, 드 꺼블 전경 .....	44
〈그림 V-2〉 NDSM 사업대상지 .....	45
〈그림 V-3〉 쿠로카베 재생사업 대상지 .....	46
〈그림 V-4〉 코가네초 - 히노테 역 고가 다리 밑 .....	47
〈그림 V-5〉 강강이예술마을 전경 .....	49
〈그림 V-6〉 문화비축기지 시설 .....	50
〈그림 V-7〉 세운상가 재생시설 .....	51
〈그림 V-8〉 익선동 한옥마을 시설 .....	52
〈그림 V-9〉 아트큐브136 .....	53
〈그림 V-10〉 포항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 .....	54
〈그림 VII-1〉 시대별 예술의 거리 공간 기능의 변화 .....	11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자체 차원의 재생사업이 아직도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공간과 프로그램 연계 전략, 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휴먼웨어 활용 전략 등을 통해 사업의 방향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존에 추진된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점에 근거해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의 문화재생 관련 정책 분석 및 광주지역에서 추진된 기존 문화적 재생사업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문화재생사업 이후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 개선, 지역 공동체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방법

- 문헌자료 분석, 국내외 문화재생 사례조사
- 문화재생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 간담회 개최

## 3.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 단계<sup>1)</sup>

- 1단계 : '문화적 사회모임' 구성
- 2단계 : 장소기반 문화활성화
- 3단계 : 문화 닷 내림
- 4단계 : 문화앵커지역 조성

---

1)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19,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용

#### 4.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정책 방안

- 지자체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필요
- 문화적 재생사업 단계별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
- 문화적 재생정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해 시민신탁제도 도입
- 중간지원조직 운영
- 문화적 재생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 발굴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파일럿 연구사업 추진
- 지역 기획자 중심 사업 추진
- 문화인력 활용 DB 구축
- 광주의 지역 특성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 문화적 아카이빙 사업 추진
- 관련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
- 문화적 재생사업의 지속성 담보 필요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 차원의 재생사업이 아직도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공간과 프로그램 연계 전략, 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휴먼웨어 활용 전략 등을 통해 사업의 방향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공동체 결속 약화, 지역 문화자원에 기반한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이에 정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서 문화적 재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제고, 공동체 의식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생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정부차원에서 문화재생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0년 초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됨
- 따라서 기존에 추진된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점에 근거해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결과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물리적 재생보다 지역 문화자원 기반 재생 추진을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함
- 특히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기획자 양성, 문화적 재생사업에 기획자와 관련 예술가간 결합, 조성될 공간에 프로그램 접목 등이 사업 추진 전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 문화적 재생사업 이후 사업의 결과가 선순환될 수 있는 체계 구성을 위한 행정,

민간, 예술가 간 협업 체계 구성 등에 대한 정책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시민주도의 상향식 문화재생산업 추진 및 공공의 민간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 문화적 재생사업의 결과가 단기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접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문화적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존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 연구목적

- 기존 문화재생 관련 논의 검토를 통해 문화재생에 대한 유형을 정리한 후 문화재생에 대한 정책개념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정부의 문화재생 관련 정책 분석 및 광주지역에서 추진된 기존 문화적 재생사업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국내외 문화재생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광주지역 문화재생산업의 미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재생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및 조사결과에 근거한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광주지역 문화재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문화재생산업 이후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 개선, 지역 공동체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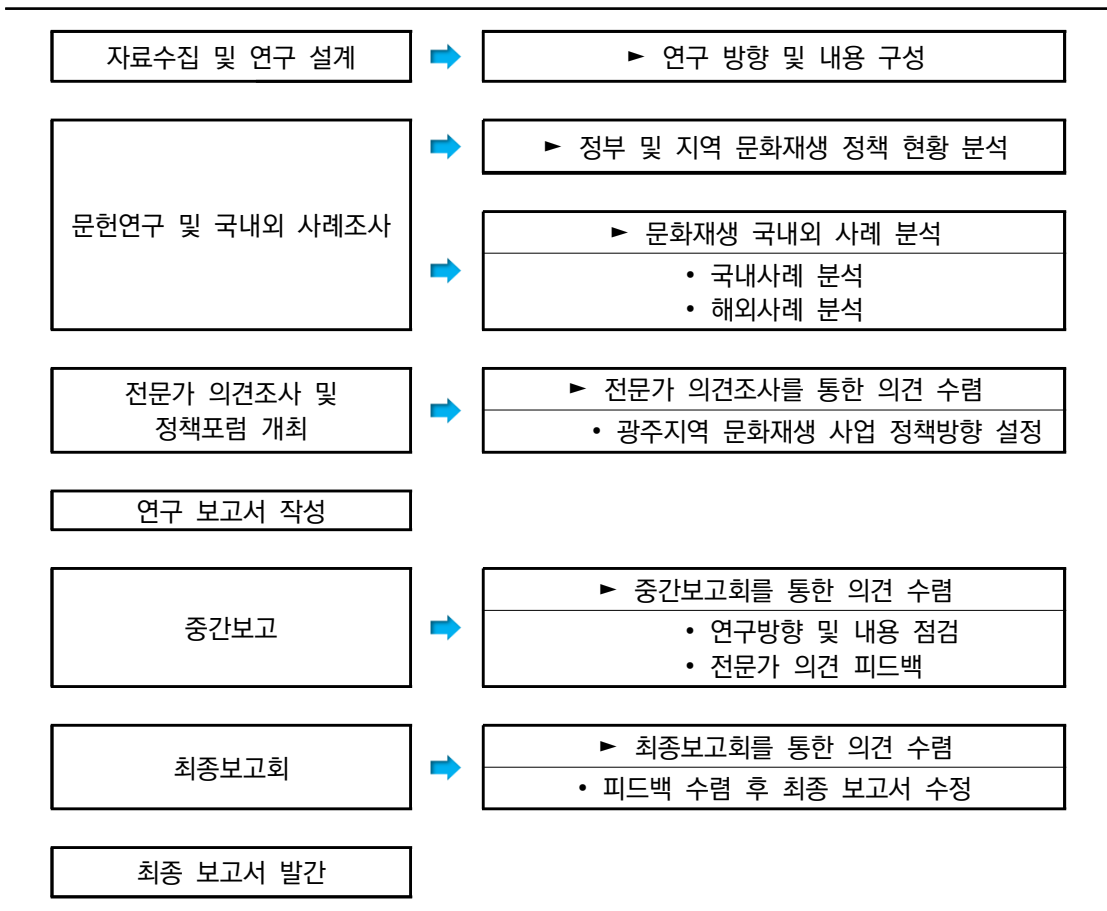
## 3. 연구방법

- 문헌자료 분석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관점에 기반 지역 문화재생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관련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하고자 함
  - 정부의 문화적 재생 지원정책 분석
- 국내외 문화재생 사례조사
  - 국내외 문화재생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 문화재생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 간담회 개최

- 문화재생 관련 연구자,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광주지역 문화재생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정책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
-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문화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동구와 남구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수행 절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광주지역 문화재생 사업 추진 방향성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II

# 문화재생 관련 논의 및 정책 개념







## II

## 문화재생 관련 논의 및 정책 개념

### 1. 문화적 재생 관련 담론

#### 1) 문화적 재생의 사회적 배경

- 많은 전문가들은 문화적 지역재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탈근대, 탈산업화, 탈도시화와 연관지어 논의하고 있음
- 물질문명에 기반한 압축적 발전에서 나타나는 폐해로 사회가치 상실과 사회적 공동체간 유대감 약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가 갖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간주됨

〈표 II-1〉 문화적 지역재생의 사회적 배경관련 주요 논의 내용

서준교(2005)	· 서구 유럽의 공업도시들이 탈산업화로 인해 지역 경제 쇠퇴와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됨 · 인력이 도심부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시문제로 불거짐. 도심 중심부의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사회적 쇠퇴’가 초래됨 <sup>2)</sup>
우신구(2014)	· 선진국의 도시들이 제조업 쇠퇴로 탈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대안으로 문화와 예술에 기대를 걸게 됨 <sup>3)</sup>
권태목, 백승만(2017)	· 문화도시의 패러다임은 선진국형 탈산업화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보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도시의 질적인 재생임 <sup>4)</sup>

2) 서준교(2005), 도시의 경제, 사회혁신에 있어 문화도시 건설의 중요성 연구 - 문화도시의 이론적 고찰과 Glasgow의 문화도시정책사례를 중심으로, 2005 영호남공동학술대회, p. 161

3) 우신구(2014), 예술과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대한건축학회, 건축, 58(6), p. 39

4) 권태목(2017),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 활용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p. 19

## 2) 지역재생과 문화의 사회적 가치, 역할

- 주민 주도 지역재생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문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지역 재생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제고 및 구성원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 현장에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함이 인식되고 있음

〈표 II-2〉 문화적 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주요 내용

원향미(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가 제 수명을 다하면 정부와 자본세력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함. 그러나 도시(재)개발은 시민들로부터 정주성과 공동체성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옴</li> <li>· 주택은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거주지는 잠 자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함. 이런 과정에서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역사성과 장소성은 소멸되고 시민 또한 도시의 주체가 되지 못함<sup>5)</sup></li> <li>·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예술가나 행정주체들이 지역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마을이 당면한 문제를 문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서 문화가 갖는 역할은 마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임</li> </ul>
김효정(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들고 부수고 새로 만드는 상황을 반복하는 도시의 일상에서 도시인들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법으로 시작된 것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시 재생사업이었음</li> <li>·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결과를 보면, 공약이나 단기적 성과를 얻고자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예술가가 그린 벽화 그리기 등의 사업을 통해 정체모를 건물과 장소만 늘어나고,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는 갈수록 희미해지며 지역의 근본적 취약성은 개선되지 않는 기현상을 낳고 있음</li> <li>· 하드웨어 대신 소프트웨어로 도시의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에 사람은 없고, 주거시설이나 오피스 등 새로운 경제시설로 대체하던 기존의 방법에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획득한 '문화콘텐츠'라는 도구를 대체한 것에 불과함</li> <li>· 문화가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시작된 '유럽문화수도' 사업이 일부 도시에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면서부터임</li> <li>· 이후 2002년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면서 문화와 예술은 도시발전 특히,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요소이자 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함<sup>6)</sup></li> </ul>

5) 원향미(2014), 한국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의 사회적 역할 연구, 민족미학, 13(2), p. 184, 185, 196

6) 김효정(2014),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 국토, p. 43, 46

### 3) 문화적 재생의 개념에 대한 논의

- 최근 학계 등에서 문화재생에 대한 개념정의(문화재생 / 문화적 지역재생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등)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3〉 문화적 재생 개념에 대한 논의

추미경(2012)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창조경제 조성과정과 결합됨으로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임 <sup>7)</sup>
이나영, 안재섭(2014)	· 문화를 통해 도시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고 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서 문화가 도시민의 삶의 중심이 되는 문화적 도시재생 <sup>8)</sup>
이병민, 김기덕(2014)	·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지역재생은 인간 중심의 지역재생 전략으로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지역재생 전략과는 차별화된 인간의 창조성과 창조적 잠재력에 근간을 둔 새로운 형태의 재생을 의미함 <sup>9)</sup>
조광호(2018)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를 존중하고 시민의 정주권과 문화권을 동시에 증진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구함 · 문화를 통해 도시공간의 장소적 가치를 재구성하는 문화 중심의 재생모델을 구축해 지역에 장소 기반의 문화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지속가능한 기능을 갖는 도시 구역이자 핵심 문화장소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있음 <sup>10)</sup>
안지연, 김보름(2018)	· 문화재생이란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 전략’으로, 지역성을 창출하고 개발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음 <sup>11)</sup>
윤정란(2012)	· 문화적 도시재생은 문화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비가시적 도시기능까지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물리적 도시재생과는 확연하게 구분됨 · 근래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역사자원 콘텐츠에 기반한 문화적 도시재생이 사실상 도시재생의 일반화된 수단 유형이 되고 있음 <sup>12)</sup>
황희연(2014)	· 물리적 시설 공급 중심의 재개발을 넘어, 사회·경제·문화·환경 등의 종합적 시각으로 도시를 활성화해야 함 · 단순한 사업지구의 정비가 아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살리며,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도시의 정체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sup>13)</sup>

7) 추미경(201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 112

8) 이나영, 안재섭(2014), 문화적 도시재생전략의 사례 연구 - 서울 서촌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4), p. 110

9) 이병민, 김기덕(2014), 한국형 지역재생 개념수립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방안모색,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제 48권 2호, p. 295

10) 조광호(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소개와 의미 있는 추진을 위한 제언, 지역문화진흥원, 기획연재(7), P. 3

11) 안지연, 김보름(2018),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치와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 성북문화재단 공유원탁회의와 산림예술창작소 작은따옴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4), P. 351

12) 윤정란, 여옥경, 장성화(2012),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비교 연구 - 전주시 및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국토지리학회지, 46(3), p. 332-333

- 대부분의 논의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적 의미로서 문화를 활용하는 접근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적 재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 4) 문화적 재생의 기본 속성과 특징

- 문화적 재생관련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과 의미를 종합하면, ‘시대를 열어가는 사회철학의 키워드로서의 문화’, 문화가 추상적 개념과 관점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 광의의 문화로부터 협의적 문화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해석되고 있음

〈표 II-4〉 문화적 재생에서 제시되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속성과 해석 범위

문화의 개념		가치와 역할 해석
광의적 개념의 문화 ↓	지역을 이끌어가는 데제이자 가치	문화가 그 지역 사회의 가치 중심이자 철학으로서 안착되어 지역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문화
	지역을 구성하는 기반구조이자 틀	문화적인 지역재생으로 지역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지역재생의 기반 틀이 되어 작동하는 문화
	문화적 재생의 과정이자 방법론	지역재생의 과정을 열어가는 중요축으로서의 핵심코어가 되고 그 과정을 지원하는 문화
협의적 개념의 문화	재생을 추진하는 한 영역이자 범위	지역의 사회적 수요와 요구에 근거해 지역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의 한 축으로서 영역을 담당하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발휘되는 문화
	재생 추진의 아이템이자 수단	지역재생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는 수단이나 촉매제로서 기능하는 작은 범위로 작용하는 문화

자료 출처 :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19,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적 재생의 속성은 문화를 기반으로 주민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며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13) 황희연(2014),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재생으로, 국토, p.3

〈표 II-5〉 문화적 재생의 기본 속성에 대한 논의

이상훈, 황지욱(2013)	· 도시의 쇠퇴는 공간 위주의 패러다임이 도시민에 대한 이해, 그들의 생활공간인 장소 및 인간과 장소의 상호관계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줌 · 도시 패러다임이 공간이 아닌 장소 기반 인간의 사회적 과정을 축으로 해야한다는 것임 <sup>14)</sup>
원향미(2014)	·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지점은 문화를 통한 주체들 간 소통임. 도시재생을 주도 하는 주체들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고 마을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sup>15)</sup>
송복섭(2016)	· 행정은 수단이고 서비스여서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수요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를 결정하고 허락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함 · 이제는 도시재생을 위해 행정과 공공이 먼저 변화해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음 <sup>16)</sup>
이영범(2017)	· 도시재생이 시민사회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도시공간의 외관’을 재생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장소의 가치를 제대로 되살리고’ ‘어떻게 하면 재생된 장소가 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며’ ‘어떻게 하면 양질의 재생된 장소가 도시의 문화적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얻는 것임 <sup>17)</sup>

## 5) 문화적 재생의 전개유형

- 지역재생에 있어 문화를 해석하는 범위에 따라 테제로부터 아이템이자 촉매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함
- 문화적 재생의 전개유형은 크게 ‘문화가 테제가 되는 문화재생’(사례, 유럽문화도시 네덜란드 레이우아르던 및 벨기에 몽스, 일본의 가나자와 및 나가하마, 일본 에치코즈마리, 한국 전주 전통문화도시), ‘문화가 매개체이자 과정적 방법론이 되는 문화재생’(네덜란드 NDSM 및 드 꺼블, 리투아니아 우주피스공화국(일탈의 도시), 대만 송산 및 화산 창의문화원구, 부산의 원도심 문화재생 사례인 또따또가 및 깡깡이 예술마을) ‘문화를 기술적,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재생’(프랑스 르 썬카트르, 일본 요코하마뱅크아트 1929 프로젝트, 천안 아트큐브 및 창조두드림센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14) 이상훈, 황지욱(2013), 도시재생의 정책배경과 패러다임의 전환, 국토계획, 48(6), p. 400

15) 원향미(2014), 한국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의 사회적 역할 연구, 민족미학, 13(2), p. 196

16) 송복섭(2016), [짧은 글 긴 생각] 도시재생을 위한 전환점, 국토, p. 124

17) 이영범(2017), [기고] 문화공원 된 석유기지,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213220469535&outlink=1&ref=https%3A%2Fsearch.naver.com>

〈표 II-6〉 문화적 재생의 전개유형에 대한 논의 검토

문화적 지역 재생의 유형 관련 논의	Evans(2005)	· Evans는 문화적 재생 유형을 ‘문화적 재생(cultural regeneration)’, ‘문화주도형 재생(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문화와 재생(culture and regeneration)’으로 구분함
문화가 테제가 되는 문화재생	오덕성, 이기복, 유르겐 피치(2007)	· 도시공간의 재생과 정비, 친인간적인 환경의 조성, 매력적인 도시경관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함 <sup>18)</sup>
문화가 매개체이자 과정적 방법론이 되는 문화재생	우신구(2014)	· 도시쇠퇴에 대한 다양한 재생 전략이나 기법들이 개발되어 시도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최근 이목을 받고 있는 방법이 예술과 문화를 적용하는 도시재생임 <sup>19)</sup>
	권태목(2017)	· 도시의 문화적 재생은 『문화를 통한 도시의 재생』과 『도시의 문화를 재생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음 · 전자는 도시의 성공적 재생을 위한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것임 <sup>20)</sup>
문화를 기술적,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재생 관련 논의	양진우(2018)	· 전술적 어버니즘은 미국에서 등장해 ‘Pop-up Urbanism’, ‘Guerilla Urbanism’ 등으로 불림 · 장기적 변화를 위한 단기적 프로젝트가 핵심으로 장기 전략에 바탕을 둔 실천이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향함 <sup>21)</sup>

## 2. 문화적 재생 정책 개념

### 1) 문화적 재생 정책 개념 정의

○ 정책 개념 정의를 위한 주요 키워드<sup>22)</sup>

- 사람, 신뢰, 공동체, 공존, 자치, 시대가치, 문화, 지역가치, 사회철학, 창의와 혁신, 유기성, 문화기반 사회생태계, 문화앵커, 지역, 도시, 전환도시, 원도심, 소멸, 미래가치, 재생, 회복, 활력, 문화적 삶,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가치, 가치의 보전, 지속가능, 가치의 전환, 다중심-다거점, 사회가치 생성 효과, 사회 구심점, 사회적 가치사슬

18) 오덕성, 이기복, 유르겐 피치(2007),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7(6), p. 53

19) 우신구(2014), 예술과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건축, 58(6), p. 39

20) 권태목(2017),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 활용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기본과제, p. 20

21) 양진우(2018), 사회실험 도입을 통한 시정과제 해결방안 모색, BDI 정책포커스, (343), 1-12

22)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19,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용

○ 문화적 재생 정책 개념

- 현재 기능을 잃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원도심 등)이 문화를 통해 다시 사회활력을 되찾고 문화와 사회 각 분야 간 연결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와 효과를 생성시켜가면서 문화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문화적 삶의 가치 중심으로 사회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sup>23)</sup>

○ 개념 설명

- 문화적 재생 정책은 현재 기능을 잃고 쇠퇴 또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에서 문화로부터 연결된 ‘사회적 가치사슬’에 기반해 지역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이에 근거해 시민 주도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시도와 활동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가치를 생성함으로써 도시변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자체적으로 기획해 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임
- 도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문화적 삶이 기반이 되는 사회가치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음

23)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19,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용





### III

## 정부의 문화재생 정책 현황





# III

## 정부의 문화재생 정책 현황

### 1. 문체부 새문화정책과 문화재생

#### 1)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

- 새문화정책준비단이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함
- 문화비전 2030은 문화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문화적 접근을 표방하면서 물질적 복지, 경제적 복지를 넘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의제를 제시함
-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된 9대 의제 가운데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의제에 문화적 도시재생이 포함됨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의제 제시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회혁신 의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접근’ 및 ‘문화적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사회혁신 관련 주제를 학습, 연구,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적 지역재생,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 III-1〉 ‘문화비전2030’의 3대 방향과 9대 의제

3대 방향	9대 의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실현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분권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 문화비전 2030 의제중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 문화적 재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임
- 문화정책이 미래 사회변동, 사회혁신 의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 접근, 문화적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정책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것임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의제에는 5가지 대표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대표과제별 세부계획이 제시됨

〈표 III-2〉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의제 세부 내용

대표과제	세부 내용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여건조성)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 개선 정책 『문화로 바꾸는 삶』 추진
	(문화지구 개념 확장) 일터와 삶터가 결합된 ‘문화지대’ 조성 검토
	(인재 양성) 프로젝트 기반형 대학원 수준 ‘혁신학교’ 설립
공공문화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상향식 일자리 창출) 공동체형 문화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정책대응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의한 지역·공간 재생	(공유지) 지역 주민 주도로 문화적 활용계획 마련 및 운영
	(유휴자산) 문화적 활용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민 역할 확대
기후변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	(전분야) 환경·에너지·생태 중심 문화적 전환도시 계획 도입
	(문화 분야) 문화시설 및 행사에 에너지 전환 개념 도입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범부처 협력) 사회부처 중심으로 협력체계 강화
	(민관 협력) 의제 발굴 및 실행 협력 체계 구축
	(정책의 문화화) 문화영향평가의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문체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되면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자원 기반 활용 재생이 강조되고 있음
  - 문화가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높여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인식 확대
- 지역의 쇠퇴한 원도심 등에 대한 물리적 재생 대신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지역재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기존의 정부에서 추진한 문화적 재생사업을 살피고 올해부터 시작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자함

##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 1) 문체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 2014년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으로 스마트허브 문화재생(반월국가산업단지/경기 안산), 예술의 새로운 영토 소촌 아트팩토리(광주소촌농공단지/광주 광산구), 도시첨단 문화산업재생(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충북 청주), 영월 갤러리 온 팩토리 조성(영월농공단지/강원 영월 등), 문화대장간 ‘풀무’(창원국가/경남), 예술창작소 『創·工』(시화반월/시흥) 6개 사업에 대한 지원, 광명 문화공간 조성(폐 자원화수시설/경기 광명시), 부천 문화콘텐츠플랫폼(폐 소각장/경기 부천시), 예술로 “남송창고” 재창조(폐 양곡저장창고/전남 담양군), 나주 나비(羅飛)센터(구 호남잠사시설/전남 나주시) 4개소에 대한 문화재생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모두 30개소에 대한 사업이 추진됨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에 대한 문화재생을 통해 노후한 유휴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간 기획 및 시설 운영을 지원함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현황

〈표 III-3〉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현황

구분	사업지역	사업명	지원
산업단지 (6개소)	시화반월(안산)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2014년
	소촌농공(광주)	예술의 새로운 영토 소촌 아트팩토리	
	첨단문화산업(청주)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재생	
	영월농공(영월)	영월 갤러리 온 팩트로 조성	
	창원국가(경남)	문화대장간 ‘풀무’	
	시화반월(시흥)	예술창작소 『創·工』	
폐 산업시설 (4개소)	경기 광명시	광명 문화공간 조성(폐 자원화수시설)	
	경기 부천시	부천문화콘텐츠플랫폼(폐 소각장)	
	전남 담양군	예술로 “남송창고” 재창조(폐 양곡저장창고)	
	전남 나주시	나주 나비(羅飛)센터(구 호남잠사시설)	
소계	10개소		

(계속)

구분	사업지역	사업명	지원
폐 산업시설 (6개소)	경기 부천시	부천문화콘텐츠플랫폼(폐 조각장)	2015년
	경기 파주시	파주 캠프그리브스(구 군사시설)	
	전북 완주군	다목적에코에너지 복합문화센터(구 호남잠사)	
	전북 완주군	책마을 문화센터(구 농협비료창고)	
	경북 영주시	영주아트센터(경북전문대 식품과학관)	
	제주 제주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구 제주대병원)	
소계	6개소		
폐 산업시설 (6개소)	대구(본청)	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구 연초제조창)	2016년
	경기(본청)	청년문화공간 조성(구 서울농대교사)	
	경기 수원시	eco_newseum 고색(구 하수처리시설)	
	전북 전주시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주 쏘렉스 공장)	
	전북 완주군	로컬디자인:Art&Craft(구 호남잠사)	
	전남 담양군	문화를 빛다: 해동술공장(구 양조장)	
소계	6개소		
산업단지	첨단문화산업(청주)	동부창고 문화재생	
폐 산업 시설 (5개소)	부산(본청)	복합문화공간 조성(구 고려제강 수영공장)	2017년
	경기(본청)	융복합 문화창조 공유 플랫폼(구 서울농대교사)	
	전북 남원시	남원 아트센터 조성(구 방송국)	
	전남 광양군	광양 문화융광로 조성(폐 창고)	
	세종시	조치원 정수장 문화재생(구 조치원 정수장)	
소계	6개소		
폐 산업시설 (3개소)	경기(본청)	제2 청년문화창작소 조성	2018년
	세종시	조치원유휴부지활용문화재생	
	울산 남구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	
소계	3개소		

### 3. 2018년 문화적 도시재생 예비사업

#### 1) 기본방향

- 정부는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2018년 예비사업을 추진함
-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지역의 문화자원과 결합된 공간 구성 및 지역 재구성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둔 지역재생 모델을 구축하고자함
- 지역의 유휴공간 및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지원
  - 공간과 프로그램 접합을 통해 장소성 기반의 문화재생 추진

#### 2) 사업개요

- 유휴 다중이용공간을 지역의 문화·역사, 도시문제,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문화앵커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지원
- '18년 예산 4억원(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지원

#### 3) 사업대상지 현황

- 사업 대상지 현황

〈표 III-4〉 사업 대상지 현황

선정지역	사업 대상지	주요 사업계획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일대 (남산 중앙시장 입구)	· 지역 문화예술 실험장 '삼거리 스튜디오' 운영 · 중앙시장 상인 연계 '삼거리 식탁' 운영 · 원도심 속 야외 복합문화프로그램 '삼거리 루프탑' 개최
전북 군산시	신흥동 34-5번지 일대	·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말랭이 교실, 말랭이 공방 운영 · 지역 정체성 발굴·공유를 위한 마을주민조사기록화, 마을이야기 제작 · 말랭이 : 산봉우리의 사투리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일대 (곰틀로 일원)	· 곰틀로 문화경작소 '청포도 다방' 조성 및 '문화품앗이' 외 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 · 재난 및 쇠퇴도시 한일교류 포럼(후쿠시마) 등
부산 영도구	대평로 1,2가 일대 (구 대평동)	· 주민, 방문객, 기술자, 예술가가 함께하는 마을동아리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예술가의 밥상, 메이커스 프로젝트 등 * 강강이 : 배 수리할 때 나는 망치소리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인용

#### 4) 사업 주요성과

##### ○ 사업 성과

〈표 III-5〉 천안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주요 성과

사업 주요 성과	
Anchor Space 문화거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동 주민센터의 내부환경공사 완료</li> <li>○ 문화거점(중앙동 주민센터 남산별관)을 중심으로 대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남산별관, 남산공원으로까지 문화적 영향력 확대</li> </ul>
Cultural Influence 문화적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리 프로그램에 매주 지역주민 참여</li> <li>○ 남산 별관 내 생활문화동호회 프로그램 운영</li> <li>○ 남산마을 라디오프로그램 및 빈 책장 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주도 기획형 프로그램 진행 예정</li> </ul>
Social Impact 사회적 효과 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출신 전문요리사와 함께 인근시장을 방문, 식재료 구입 및 요리로 사업 홍보와 남산별관 방문 이용객 증가</li> <li>○ 남산별관을 놀이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거주 노인 및 아이들 간 친목도모 및 여가복지 공간 제공</li> <li>○ 남산별관의 문화 장소성 구축 및 청년 문화기획자와 문화예술관련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시장 내 청년층 유입 증가 유도</li> </ul>
Governance 연계사업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연계</li> <li>○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li> <li>○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영상미디어센터 상영사업(자체사업)과 연계 추진</li> </ul>

〈표 III-6〉 전북 신흥동 말랭이마을의 오늘

사업 주요 성과	
Anchor Space 문화거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지 내 무상 제공된 사유지 2개소를 문화프로그램 운영 거점으로 활용</li> <li>○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들 간 논의를 통해 앵커장소 구축 예정</li> </ul>
Cultural Influence 문화적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민 대상 프로그램에 실제거주 세대 다수 참여</li> <li>○ 문화예술프로그램에 군산거주 다수 예술가와 전문가 참여</li> </ul>
Social Impact 사회적 효과 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범위를 거주민에서 잠재적 이주민 및 말랭이마을 애착자로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 거주민 등과 함께 사회적공동체 구성함으로써 마을과 문화시설의 지속가능 기반 마련</li> </ul> </li> <li>○ 거주민의 '오래된 삶' 이야기로 근대에 한정된 군산의 도시콘텐츠 확장에 기여</li> </ul>
Governance 연계사업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 근대마을조성사업 연계</li> </ul>



〈표 III-7〉 포항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주요 성과

사업 주요 성과	
Anchor Space 문화거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틀로 내 문화경작소 ‘청포도다방’ 조성공사 진행중</li> <li>○ 꿈틀로 문화공판장 조성으로 커뮤니티 거점공간 확보</li> </ul>
Cultural Influence 문화적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와 예술가 협업을 통해 상가 헌판 및 상가 감성간판 부착 예정</li> <li>○ 주민/상인과 작가간 일대일 관계 형성을 통해 인테리어 개선 등 상가활성화 지원</li> </ul>
Social Impact 사회적 효과 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현대제철 봉사단)-예술가(입주작가)간 협업활동(문화공작소 철수와 묵수)을 통한 지역사회 협치</li> <li>○ 관계맺기 프로그램(문화 품앗이)을 통한 사회적 문화재생 중요성 환기</li> </ul>
Governance 연계사업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연계</li> <li>○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li> <li>○ 포항문화재단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연계</li> </ul>

〈표 III-8〉 부산 영도 강강이 A&C(아트 앤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업 주요 성과	
Anchor Space 문화거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 내 강강이생활문화센터, 마을공작소를 중심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li> <li>○ 연계사업 거점 공간(선박체험관, 마을안내센터)을 포함해 문화예술마을로 조성 구체화</li> </ul>
Cultural Influence 문화적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 메이커스, 커뮤니티 행사를 통해 주민 다수 참여</li> <li>○ 투어 프로그램에 외지 관광객 다수 참여</li> </ul>
Social Impact 사회적 효과 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에 주민역량강화 부분을 포함시켜 사업 완료 후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마련</li> <li>○ 주민활동가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민주적 소통 방법을 훈련하고 마을의 미래를 고민</li> <li>○ 지역 주민, 기술자와 예술가들 간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li> </ul>
Governance 연계사업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 수리조선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li> <li>○ 부산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수변지구 활성화 계획 추진 예정</li> </ul>

## 4.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 1) 사업개요<sup>24)</sup>

○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현황

〈표 III-9〉 사업 대상지 현황

지자체	위치	사업명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구도심	〈맷돌모루*〉 *경계를 넘나들며 융합하다 마석우리 문화공작소, 문화포털잡지 '맷돌모루' 발간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604 일대	〈동두천 문화터미널〉 문화아카이빙과 전시 프로젝트, 평화루트 개발
경기 하남시	신장 1동 일대	〈다시 찾은 문화路 신장 777〉 시민참여 '잠깐 노는 학교', '문화공간 빈집'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역 및 경인로 일대	〈문화생산도시 리빙랩〉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 운영, 문화재생포럼
대전 대덕구	한남로 88번길 일대	〈In 88Street〉 콘텐츠팩토리 조성, 88패션 카니발, 무지개축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33-4 일대	〈화원청춘 옥상실험실〉 화원시장 옥상을 활용한 프로젝트, 중구예술교육영화제
부산 중구	40계단 주변 및 동광동 일대	〈시민주도형 예술교육도시 플랫폼 중구〉 청년도시기획 프로젝트, 중구예술교육영화제
부산 영도구	영도구 전체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영도 이야기학교, 생태도감, 절영마(horse) 조형물 설치
인천 서구	원적로 및 장고개로 일대	〈문화더하기+〉 지식공유 '코스모40 아카데미', 공장 속 '북클럽'
광주 남구	월산동 323번지 일대	〈달뿔 달팽이 문화마을〉 청소년 골목 조사단, 달뿔마을 골목학교, 역사박물관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일대	〈궁동예술마당〉 두레마당 '누구나' 숲, 예술로 예술창업 키움관 조성
강원 강릉시	중앙동 서부시장 일대	〈강릉 문화적 도시재생〉 주민커뮤니티 '다섯개의 방'(다방, 책방, 주방, 규방, 점방)
강원 춘천시	약사동 25-4번지 일대	〈도시를 잇는 '터무늬*') *터를 잡은 자취 터+무늬 마을공방 '터무늬 연구소', 여행 '터무늬 안내소'

24)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자료 참조(문화체육관광부, 2019)

(계속)

지자체	위치	사업명
강원 태백시	철암동 366-46 철암역 일대	〈태백 역사·문화 장터 만들기〉 철암탄광역사촌, 쇠바우골 탄광 문화장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및 사직동 일대	〈세대-장르 간 문화 연결〉 생활문화 창업 지원, 일일요리, 문화연결 공간 조성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일대	〈사람이 심고 꽃이 답하다〉 문화적 가드닝 ‘꽃심장터’, 선미촌 마을숲 조성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일대	〈금오시장로, 문화로 리-디자인하다〉 시민다방, 금오시장로 예술축제, 사랑방 운영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여천동 일대	〈꿈틀로 문화재생〉 청포도 다방, 지역재난활동가 육성, 나루터 문화놀이 창고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53 일대	진장(陳場)거리, 문화예술의 진(陳)을 치다

- 공공공간의 문화적 장소가치 생성 및 정착을 통한 쇠퇴지역 활성화 사업
  - 공공공간 : 도시 내에 위치하여 공공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실내·외 유희공간, 광장, 공원, 골목길, 지하보도, 수변공간, 쇠퇴지역 및 마을구역 등 시민의 문화활동 및 이를 위한 사용이 가능한 영역으로서의 다중이용공간 및 시설, 오픈스페이스 등을 모두 포괄
  - 쇠퇴지역 내 공공적 이용이 가능한 공간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문화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장소가치 생성 및 지역 활성화
- 쇠퇴지역의 공공공간을 문화거점 장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
  - 휴먼웨어, 프로그램, 공간조성에 대한 통합 지원을 통해 장소성 기반의 문화재생 추진

##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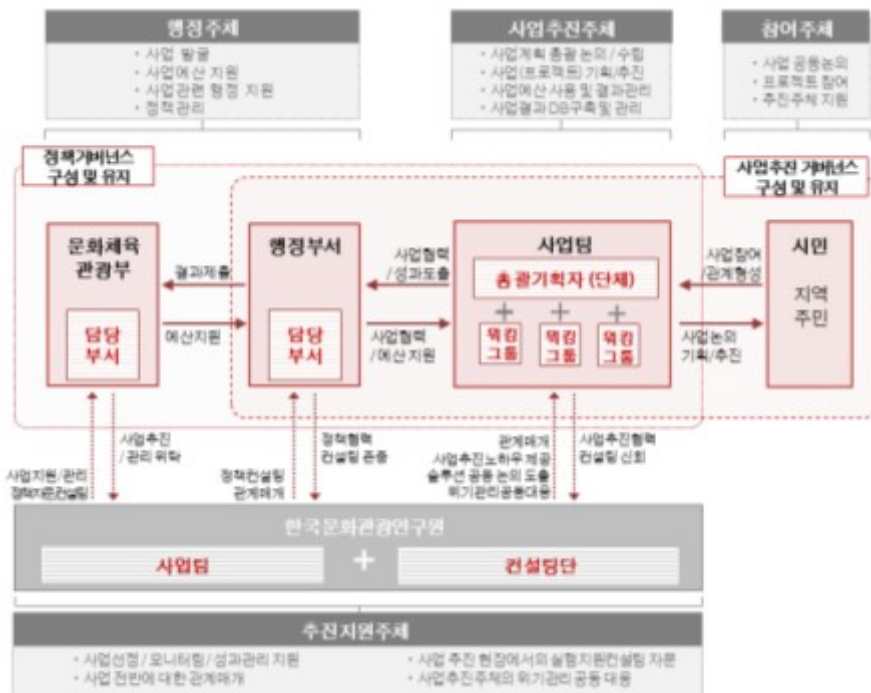
- 지역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 정주권과 문화권을 함께 증진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기존의 양적 재개발 위주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정체성·공동체 약화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 자원 기반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재생 전략 모색
-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

### 3) 지원내용

- 도시 내 공공공간에서 장소성 기반의 문화가치를 만드는 문화기획 및 활동에 대한 종합 지원
- 사업추진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쇠퇴지역에서 체류하며 문화재생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민간영역의 사회적 창 의 집단 구성 및 조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장소성기반 문화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장소기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디자인 사업비 지원
- 각 사업에 대한 집중컨설팅 및 공유워크숍 등 지원

### 4)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그림 III-1〉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사업계획 총괄 수립, 사업 및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 공간 디자인 추진 및 관리
- 지자체 사업 거버넌스 구축 및 유지 등

○ 추진지원주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업선정/모니터링/성과관리 지원, 정책에 대한 컨설팅 자문, 사업전반에 대한 매개(정책/사업)
- 컨설팅단 : 사업 실행지원 컨설팅 자문, 사업추진주체의 위기관리 공동대응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예산지원, 정책 및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관리
-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사업예산지원, 지역행정 지원 및 관리, 총괄기획자와의 거버넌스 유지 및 사업추진 전반 지원

○ 참여주체

- 지역주민 : 문화재생 사업 추진 기획 공동 논의, 토론/프로그램/행사/교육 프로젝트 참여, 사업추진주체 지원 등



# IV

##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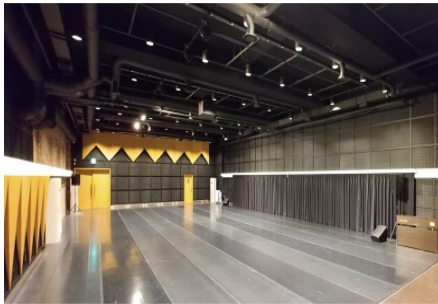


## IV

#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 현황 분석

## 1. 소촌아트팩토리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 1) 소촌아트팩토리 조성개요<sup>25)</sup>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유노유희 작은도서관

〈그림 IV-1〉 소촌아트팩토리 시설

- 2009년 재해재난 상황 실습훈련장을 갖춘 민방위 체험식 교육장이 2009년 이전 개관함
- 광산구 지하 민방위대피시설에서 진행된 민방위 훈련은 교육장 개관으로 활용도가 소실됨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에 광산구가 선정되어 소촌아트팩토리가 본격 조성됨
-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으로 쓰이던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폐기될 예정이었으나 아시아문화마루 29개의 컨테이너가 소촌아트팩토리 예정 부지로 이전하게 됨

25) 제1차 광산문화포럼 무용지용(2019, 광산구청) 자료 인용

- 2015년 12월 24일 개관한 소촌아트팩토리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같은 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재구성됨
- 2017년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 개관, 2018년 유노윤호 작은도서관 ‘HUG’ 개관

## 2) 소촌아트팩토리 운영현황

- 개관 : 매주 화-일요일 9:00~18:00
- 운영주체 : 광산구 문화예술과
- 시설현황

〈표 IV-1〉 소촌아트팩토리 시설현황

구분	공간구성			비고
가동 1,416.31㎡	소촌아트팩토리 운영사무실/아르코공연 연습센터	B1	대연습실, 회의실, 샤워실 등	광산구 민방위대피시설 리모델링
		1F	운영사무실, 세미나실, 커뮤니티 카페	
		2F	중연습실, 리딩룸	
다동 949.71㎡	큐브미술관	전시실, 레지던스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리모델링
	유노윤호 작은도서관 HUG			

## 2.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 1)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조성개요



〈그림 IV-2〉 시화 문화마을 전경

- 2000년 쌈지 소공원 조성과 함께 사업이 시작됨. 2001년 화합의 바람돌이 조형물 설치
- 2002년 시화가 있는 마을 사업 본격 추진
- 살고 싶은 마을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시화문화마을 조성계획문화지구 지정(광주광역시), 각화동 2호석실분 정비복원(주민 주체 역사자원 발굴), 시화환경 예술제 프로그램 등 개최
- 관의 간섭 심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약화 등으로 사업 동력 약화
- 문화마을 주민리더 부재 등으로 사업의 확장성 및 지속성에 한계 노정

### 3. 1913송정역시장 재생

#### 1) 1913송정역시장 사업 배경



〈그림 IV-3〉 송정역시장 전경

- 시장 상권 침체로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활력을 잃은 전형적 재래시장이 실질적인 시장기능을 상실함
- 60세 이상 고령의 상인이 운영하는 시장으로 자생적인 개선 가능성이 낮고, 시장 인근 지역 공동화 우려 상존
- 1913송정역시장은 상인 개개인이 자리를 지켜온 상점에 누적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향성 설정
- 초창기 멤버 매니저 사업 완료 후 지속성을 위한 장치 필요
- 특히 시장 방문객이 들를 수 있는 연계 관광지 마련 필요

## 2) 주요 사업내용

- 기존 상인점포 개선 : 각 점포 별 개성, 전통을 살린 디자인 설계를 위해 상인들의 니즈 파악
- 청년상인 모집 및 유치 : 비어있던 17개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 모집 및 유치
- 고객편의/부대시설 조성
- 상인교육 및 컨설팅

## 4. “빛나는 청춘발산” 마을재생사업

### 1) 청춘발산 사업 배경



마을미술프로젝트



청춘빌리지

〈그림 IV-4〉 청춘 발산마을 전경

- 1960~70년대 전남방직, 일신방직 등 방직산업이 호황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방직 공장의 규모 축소로 마을이 함께 쇠퇴하면서 인구 감소 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 2007년 발산철거지역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작가들이 골목길에 일상공간의 소멸을 아쉬워해 공공미술 작품을 선보임<sup>26)</sup>
- 초기 입주한 문화예술팀이 남아 있게 여건 조성 필요

26)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빛나는 청춘발산” 마을(2019, 서구청) 자료 인용

## 2) 청춘발산 사업 내용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동주관으로 “별이 뜨는 발산마을 별별 잡기”라는 주제로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마을로 탈바꿈(12개 조형물 설치)
- 2015년 현대차그룹이 주최하고 공공미술프리즘의 주관으로 주민과 함께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공공미술사업 추진(길러프로젝트, 마을경관개선, 청년 마을기업, 마을아카이브 활동 등)

## 5. 대인예술시장



〈그림 IV-5〉 대인예술시장 별장 프로그램

### 1) 사업 배경<sup>27)</sup>

- 1980년대 황금기를 누린 대인시장은 1990년 초반부터 진행된 광주시의 택지지구와 부도심 개발을 통한 도심의 팽창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화됨
- 구 시가지의 거주 인구 유출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인시장은 침체의 길을 걷게 됨

27) <http://cafe.daum.net/csgagocmt/OLBC/19086?q=%EB%8C%80%EC%9D%B8%EC%98%88%EC%88%A0%EC%8B%9C%EC%9E%A5>

-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입주한 지역 작가들이 대인시장 내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예술가들의 모임 ‘대소쿠리’가 운영되었고, 2013년 예술가중심의 ‘다다협동조합’이 결성됨
- 2009년 2월 ‘대인시장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사업’ 추진 및 2012년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4년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대인예술시장 ‘별장 프로젝트 사업단’ 운영
- 공간과 연계한 프로그램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업 지속성에 어려움 있음

## 2) 사업 내용

- 2014년 주요사업 내용
  - 예술인 대상 프로그램 : 대인예술 야시장, 한평갤러리, 레지던스 프로그램
  - 시민주체 프로그램 : 메이커스 스튜디오, 소풍유락
  - 기타 : 운영협의체 운영
- 2016년 주요사업 내용
  - 예술지원프로그램 : 대인문화창작소 지음, 한평 갤러리, 대인예술학교
  - 시민프로그램 : 대인예술야시장 ‘별장’
  - 상인대상 프로그램 : 상상예감, 샵 인 비엔날레

## 6. 양림동 창작공간 조성

### 1) 조성 배경

- 주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이 잘 드러나지 않음
- 벽화 그리기 등 공동체 형성보다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고, 정량적 목표 달성에 중점이 두어짐
- 선교사 사택을 리모델링해 예술인 창작공간, 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예술인 작품활동 및 예술인과 주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





창작레지던스



전시관

〈그림 IV-6〉 양림동, 전시공간

## 7. 정책 시사점

- 지자체에서 직접 관여한 후 사업의 자생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반 조성  
에 대한 지원 후 운영은 민간영역에서 자생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간접지원 필요
- 공공에서는 사업이 시동이 걸려 추진력을 갖도록 지원한 후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  
아야 할 필요가 있음
-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게 공간과 프로그램 연  
계를 사전에 기획해 추진 필요
  - 기존 자생적 거점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형성 필요
- 예술가, 청년, 주민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체계 구성을 통해 사업의 결과가 지속성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음
- 재생사업 주체간 위화감 해소를 위한 공동체 모임 구성 필요
- 소규모 공모전을 통해 지역민 주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건 조성
- 재생사업 주민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  
그램 강화 필요
-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기획한 후 이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합의 후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 고려

- 재생사업을 통해 구성원간 문화적 모임이 형성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 추진 필요



# V

## 국내외 문화적 재생 사례 분석







## 국내외 문화적 재생 사례 분석

### 1. 국외사례<sup>28)</sup>

-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국외 문화적 재생사례를 분석하고자함

#### 1) 네덜란드(드 꺼블 : De Ceuvel)

- 위치 : 드 꺼블은 암스테르담 북구 IJ 강변에 위치하고 있음
- 사업내용
  - 2010년 암스테르담 시는 조선소가 있던 오염된 유헬부지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입찰 공모 추진
  - 입찰 조건은 오염된 부지를 환경적으로 재생하고 사회혁신가의 입주를 통해 지역 재생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있었음<sup>29)</sup>
- 입찰에 당선된 민간 그룹은 10년 간 부지 사용권한을 부여 받고 지역재생 전략 및 장기 실행방안을 세움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실험하는 사회혁신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 활용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뜻을 함께하는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과 사회혁신 운동 전개<sup>30)</sup>

28)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용을 재인용함

29) Emanuela Cattaneo(2015), 『Towards sustainable wastewater management : Assessing future prospects and upscaling potential of the resource recovery sanitation niche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Utrecht University Faculty of Geosciences Master's Thesis, p. 50

30) 제1차 광산문화 시민포럼 무용지용 발표자료 참조(2019, 광산구청)



출처 : <https://deceuve.nl/en/boats/metabolic-lab/><https://spectral.energy/news/jouliette-at-deceuve/>

〈그림 V-1〉 드 꺼블 메타볼릭 랩, 드 꺼블 전경

### (1) 시사점

- 시정부의 민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민간의 자율성이 발휘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현이 이루어짐
- 민간 주도의 상향식 문화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조성
- 문화예술 관련 워크숍, 강연, 축제, 음악, 전시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화예술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

## 2) 네덜란드 : NDSM(New Dock Activities Stories Members)

- 위치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주요 내용
  - NDSM 지역은 1984년 NDSM 조선회사의 부도 이후 산업시설과 오염물질만 남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음
  - 방치된 유허부지의 재생을 위해 사업 아이디어와 실행전략을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함
  - NDSM 재생은 사업수립 전 단계부터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공공 주체와 문화예술인들과 단체들이 재생계획 수립 전반에 걸쳐 상호간 협력적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sup>31)</sup>

31)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사업에 있어 참여 주체 간의 역할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20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50권 제3호, 임동선·김정빈)



NDSM 전경



NDSM 내 예술창작 공간

출처 : <http://www.ndsm.nl/practical-information/>, <http://www.evadeklerk.com/en/kunststad/>

### 〈그림 V-2〉 NDSM 사업대상지

#### (1) 시사점

- 공공주체가 민간 조직을 수용하고, 문화예술단체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등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기획해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함
- 정부의 보조금은 재생사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사용되었으며,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운영 모델을 수립해 공간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함

### 3) 일본 : 나가하마시

- 위치
  - 일본 시가현 나가하마시 일대
- 주요 내용
  - 1970년대 도시 쇠퇴가 시작되었으며, 1979년 구도심에 있던 대형점포 2곳이 교외로 이전을 하면서 작은 상권들이 타격을 입어 도심 공동화가 심화됨
  - 쿠로카베 은행이 철거당할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이 직접 나서 구도심 재생을 주도하기 시작했으며, 지역민이 출자해 조직된 비영리법인 (주) 쿠로카베를 통해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
  - 나가하마시는 유리공예와 정기적인 전통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 상점가는 미술관, 전시관, 찻집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쿠로카베 광장



나가하마시 중심시가지

출처 : [https://japan-magazine.jnto.go.jp/ko/1601\\_shiga.html](https://japan-magazine.jnto.go.jp/ko/1601_shiga.html), <https://m.blogg.naver.com/PostView.nhn?blogId=drcentre&logNo=221014825146&categoryNo=7&proxyReferer=&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그림 V-3〉 쿠로카베 재생사업 대상지

#### (1) 시사점

- 지역의 역사적 자산인 쿠로카베 은행의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 주도로 이루어진 지역재생임
- 시민들이 함께 출자한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형태 구성을 통해 추진 주체들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
- 지역의 역사자산을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결속을 유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생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4) 일본 : 요코하마 코가네초

##### ○ 위치

- 일본 요코하마 시 코가네초역과 히데노역 사이 고가 밑

##### ○ 주요내용

- 전쟁 이후 사창가의 확산으로 케이큐 급행열차 고가철로 주변으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유명했음
- 2005년부터 성매매 업소 철거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지역주민, 대학, 요코하마시, 경찰 등이 협력해 해당 공간을 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예술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함
- 2008년 ‘코가네초 바자회’라는 미술전시회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코가네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진전, 영화제, 연극공연, 주민교류회 등의 행사가 개최됨
-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 마을의 기억과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재생사업으로 진행됨
- 공공, 지역주민 및 예술가간 협의를 기초로 지역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겪음<sup>32)</sup>



코가네초 - 히노데 역 고가 다리 밑



코가네초 - 히노데 역 고가 다리 밑

출처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97120>,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dxno=26299>

〈그림 V-4〉 코가네초 - 히노데 역 고가 다리 밑

32) 글로벌시대 동아시아 도시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한 장소만들기 전략(2018, 국제지역연구 제22권 3호, 송준민 외)

### ○ 시사점

- 지역주민 및 예술가, 공공이 협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룬 재생 사례임
- 시, 경찰, 지역주민들간 협력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철거하고, 예술인들의 유입을 통해 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함
- 기존의 공간을 부분적으로 개조한 후 예술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소의 정체성을 유지함
-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확대시키는데 협력함

## 2. 국외사례 종합 시사점

### ○ 장소성을 활용한 문화적 재생사업 확대

- 최근의 문화적 지역재생사업이 재개발 형태가 아닌 기존의 공간이나 시설물을 개조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역의 역사적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축적된 기억의 시간을 보존해 장소기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 상향식 지역 문화재생 사업의 중요성 확대

- 하향식 도시재생보다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지역재생을 위한 방향성이 제시되는 상향식 재생방식이 확산되고 있음
- 공공은 초기 인프라 기반 조성에 지원하고, 시설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구성 등을 예술가, 주민들이 협업해 지속가능한 재생사업이 될 수 있게 사업 구성
- 무엇보다 공공이 지역민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사업의 동반자로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거버넌스 체계 구성

## 3. 국내사례

-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국내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자함



## 1) 부산 영도 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

### ○ 사업배경

- 부산시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예술상상마을〉 공모
-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주민공동체의 역량, 청년활력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대상지로 영도구가 선정되어 영도구청, 대평동 마을회, 영도문화원,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이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진행

### ○ 사업내용

-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평동 깡깡이마을만의 독특한 산업유산과 생활문화를 활용
- 여기에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작품과 함께 어우러진 마을 경관 조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 영도도선복원 프로젝트,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문화사랑방, 공공예술페스티벌, 깡깡이 크리에이티브



〈그림 V-5〉 깡깡이예술마을 전경

### ○ 시사점

-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을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의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발해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재생사업 진행

## 2) 서울 문화비축기지



〈그림 V-6〉 문화비축기지 시설

### ○ 사업배경

- 서울시는 1973년 중동전쟁으로 제1차 석유파동을 겪은 이후 민생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1976년부터 1978년에 걸쳐 수도권 서부 지역에 반지하 석유 저장 시설인 마로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함
-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석유비축기지가 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석유를 수도권 내 다른 기지로 이송하고 2000년 12월 비축기지를 폐쇄함
- 2013년 석유비축기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2014년 국제 현상 설계 공모 당선작,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바탕으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면서 석유비축기지 시설은 문화비축기지로 변신을 하게 됨

### ○ 사업내용

- T0 문화마당 : 시민 시장, 축제,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광장
- T1 파빌리온 : 전시, 워크숍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 T2 공연장 : 상부는 매봉산이 둥그렇게 두르고 있어 원형극장 같은 모습임
- T3 탱크 원형 보관
- T4 복합문화공간 : 15m 높이의 기존 탱크를 그대로 살려 만든 공간으로 전시와 퍼포먼스, 워크숍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T5 이야기관 : 1970년대 석유비축기지 시설부터 문화비축기지까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동안 축적된 이야기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음

- T6 커뮤니티센터 : T1과 T2를 해체하며 나온 철판을 재활용해 외관에 부착한 신축 건축물로 운영 사무실, 창의랩, 강의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됨

#### ○ 시사점

- 상암 소셜박스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기업 주관, 문화예술프로그램 마포구 관할, 문화예술단체 기관간 연계 체계 확립
- 매봉산 자연과 연계한 시민참여 생태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협치위원회를 통해 운영정책 마련 및 프로그램 평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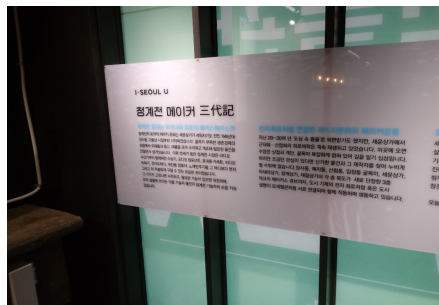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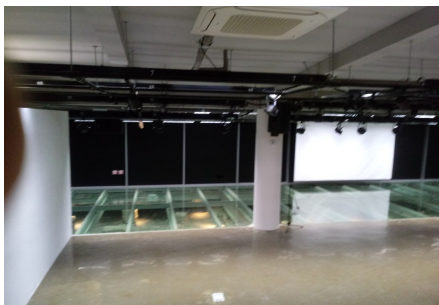
### 3) 서울 세운상가 재생 ‘다시세운 프로젝트’

#### ○ 사업배경

- 1940년대 물자가 부족한 생존경제의 상황에서 외제품과 중고, 폐품을 모아 수리하고 개조해 필요한 물건을 만들던 지역이었음
- 세운상가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과 함께 창의제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재생사업 추진

#### ○ 사업 내용

- 세운메이커스큐브(18개소), 기술중개상담실, 세운베이스먼트(서울시립대 세운캠퍼스, 세운테크북라운지, 파트너라운지, 세운인라운지, 세운전자박물관, 다시세운광장/세운홀, 종합안내소)



〈그림 V-7〉 세운상가 재생시절

### ○ 시사점

- 도시와 지역 생태계 관계를 문화적, 창조산업 관점에서 접근
- 세운상가 재생사업 전 주변 공간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적 비전을 설정해 도심 창의 산업의 핵심지로서 창의제조산업 추진
- 자체 재정을 통해 사업의 속도 조절 가능
- 정책기획, 추진에 있어 시행착오가 발생할 때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피드백 과정 마련

## 4) 서울 익선동 한옥마을 재생사례

### ○ 사업배경

- 익선동 재개발 무산된 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재건축을 통해 재생함
- 노후화된 건물 및 폐가 방치로 슬럼화된 지역을 한옥거리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 복원



〈그림 V-8〉 익선동 한옥마을 시설

### ○ 사업내용

- 자체 지역의 고유한 느낌 살려 재생, '50년대, '60년대 세월의 낡은 때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살려낸 인프라를 갖추

### ○ 시사점

- 지역 도시재생 전문디자이너 컨설팅을 활용할 필요
-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징 개발 필요
- 재생계획 단계에서 공공성 사업 비중 맞추 필요

- 창업 컨설팅 등 민간 전문가 노하우 활용을 통해 브랜드 관리 필요
- 그 지역에만 있는 브랜드 창출 필요. 자생적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장소성 활용 필요

## 5) 천안 아트큐브136 문화재생 사례

### ○ 사업배경

-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 물적기반 조성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시설에서 운영될 문화프로그램 지속성 약화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형태로 진행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lette25&logNo=221023962789>

### 〈그림 V-9〉 아트큐브136

### ○ 시사점

- 인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문화공간을 제공받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발굴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효과 강화
- 도시재생사업 담당자와 문화재생 담당자간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상시적 의견 공유
- 단년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후속 지원

-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 인프라 운영 지원
- 시민과 전문가간 협업 사업 확대 및 세대 융합 프로그램 강화

## 6) 포항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 사업배경

- 청포도다방이라는 장소성에 기반한 문화재생사업으로 추진됨
- 예술인 품앗이를 통해 사업대상지 상인과의 관계성 강화
- 사업대상지 내 창작공간, 전시공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 제고



〈그림 V-10〉 포항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

### ○ 시사점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간 조성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사업 연계
- 예산 사용, 사업 방향성, 비전 설정에 예술인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의견 공유 기회 확대

#### 4. 국내사례 종합 시사점

- 주민들이 공간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지역 자원조사 등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 추진
-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한 후 재생사업 진행
- 장소성 활용 브랜드 창출 사업 추진
- 기관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 단년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 강구
- 사업 담당자간 의견 공유를 위한 기회 확대





# VI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VI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sup>33)</sup>

- 광주지역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방향성 및 정책방안 발굴을 위해 지역 현장활동가 및 문화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적 재생사업 참여 계기, 재생사업 과정에서 겪은 애로 사항, 문화재생에서 문화가 갖는 역할, 광주지역 문화재생 미래 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질문함

#### □ 문화적 재생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 A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에서 전국일주 여행사 <익스퍼루트>를 창업해 20~30대 청년들과 전국을 여행함
- 그 여행에서 청년들이 많이 지쳤고 그런 마음을 회복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초 제주 최초 게스트하우스에 49일만 운영하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공간 <한량유치원>을 열었음
  - 한량유치원은 한 달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많은 관심을 받음. 현재 <괜찮아 마을>을 만들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재생사업,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 B

- 처음 지역의 대안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관련 사업들을 경험하면서, 점차로 교육의 문제가 교육 당사자들(교사, 학생,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마을을 고민하게 됨

33) 2019년 5월3일, 5월7일 두 차례 자문회의 개최 후 전문가 의견서를 14명의 문화재생 전문가들에게 발송해 의견서를 회수함

- 그 후로, 마을 자원 활용에 관심 갖고 교육과 연계점을 찾은 일들이, 문화재활용, 문화로시장활성화, 마을네트워크사업, 문화도시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에까지 이르게 됨

## C

- 광주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맡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리더 양성, 교육과정 운영, 마을축제 기획, 마을 특성 찾기, 마을 자원조사 등을 진행했고, 자연스럽게 행정동별 마을 특화 사업을 계획하면서 문화재생과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게 됨

## D

- 2005년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2013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농촌의 정비 및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물리적인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사업 필요성을 느끼게 됨

## E

- 2018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문화적 관점의 재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음
- 목포시 선도지역 재생사업의 코디네이터(2015~2017)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비전에서도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이었으나, 담당영역이 공간계획과 정주환경개선 부문이다 보니 문화예술이 적극적인 관심사항은 아니었음
- 2019년부터는 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동체 활성화 영역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문화적 관점으로 사업을 접근하고 있음
- 도시재생이란 도시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쇠퇴한 공간의 활성화 수단으로 문화예술은 단지 관광객들을 집객하는 수단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키는 것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침

## F

-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전통시장, 마을활성화, 상권활성화 등 다양한 생활부문의 기획으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됨. 특히 양림동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됨

## G

- 미술시장은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패턴과 흐름을 갖고 있음. 예술기획자로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에 대한 전 세계 사례를 연구하게 됨

## H

- 인천의 근대역사도시의 보존과 활성화를 고민하면서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관계함

## I

- 대학원에서 문화관광을 전공했는데,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재생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그래서 문화를 통해 관광지를 조성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문화적 재생사업에 참여하게 됨

## J

- 전반적인 국가 주도 사업에서 문화가 중심이 아닌 문화를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는 행태에 대한 제 역할의 필요성 때문에 관여하게 됨

## K

-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부산의 다양한 문화예술인, 관련 전문가/교수들과 함께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이하 플랜비)을 결성하게 됨
- 부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지역문화정책의 주요한 분야이자, 현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확장하고, 다양한 영역의 문화적 실천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부산의 주요한 문화적 재생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됨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은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문화예술법인임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문화정책의 연구와 컨설팅,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교육,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 콘텐츠의 개발, 창의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예술가 및 문화단체, 지역주민과 협력하고 있음

- ‘plan b’는 익숙한 주류적 관행에 안주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발상, 그리고 부산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예술적 실험을 의미함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은 새로운 발상과 실험을 통해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확장하고, 다양한 영역의 문화적 실천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함

## L

- 공공미술 사업, 문화재생 문화기획, 마을재생 사업 참여를 계기로 문화재생에 관심을 갖게 됨

## M

- 현재 속해 있는 시화문화마을연구소 소속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공공미술사업,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재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됨

## N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재학시절 지역개발 연구에 참여하면서 유희공간의 활용방안과 지역내 문화앵커시설 및 복합문화공간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11년도 석사논문을 문화적 재생연구로 진행함

## □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한 문화재생 사례 소개

### A

-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사업, 목포 보리마당, 광주광역시 서구 오천마을, 농성동, 청춘발산마을 사업, 고양시 아울렛지구 유희공간, 디자인 공방교육

### B

- 소도시에 있는 기회를 대도시 청년들에게 제안하기 위해,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은 다 큰 청년들에게 지역을 제안하기 위해 <괜찮아마을>을 만들
  - <괜찮아마을>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8년 6월 첫 시작을 함
  - 30명씩 2회에 걸쳐 청년을 모집했고, 청년들은 6주 기간 동안 함께 살며 심을 갖는

시간을 갖고, 지역을 배경으로 상상하고, 작은 성공을 하는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에 참여함

### C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예비사업)을 들 수 있고, 이번 달부터 광주 예술의 거리를 대상지로 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맡게 됨. 두 사업 모두 문화를 통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사람과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음

### D

- 첫 번째 사례는 사직동으로 2013년부터 주민들이 마을계획단을 중심으로 마을계획 수립, 사직동 마을학교 운영, 마을 자원조사, 마을지 제작(5권) 등 마을에 대한 토대 작업을 마친 후 2016년 마을브랜드로 <천년 선비마을>을 채택하였고, 이후 다양한 마을브랜드 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함. 또한 생생골목재생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통기타거리부터 최부잣집을 연결하는 소규모의 재생사업을 통해 선비마을이란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함
- 두 번째 사례는 역시 사직동에 자리한 통기타거리 활성화 프로젝트(행안부골목상권활성화사업)에도 참여해 통기타 뮤지션들이 중심이 되어 통기타데이 정기적 운영과 통기타 마을학교 운영, 테마거리 조성, 통기타거리 뮤지션 음반 제작 등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는데 지원을 함

### E

- 조선대 LINC+사업단과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사직동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 달피마을기획 골목길 벽화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기획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강화 도모
- KT&G를 통한 청년들을 위주로 한 문화적 남구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과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F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업으로 등록문화재를 활용한 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과거 문화재는 보존과 쇼윈도의 전시시설로만 이용되었으나, 이번 사업은 문화재를 체험의 공간으로 또는 활용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8년 공모계획서를 전문가들과 함께 작성하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 현재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특히, 본 사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등록문화재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인데, 계획서에서는 전시공간과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예술과 문화재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조성을 고민하고 있음
-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목포의 역사문화 향기를 취하다’라는 비전으로 100여년전 화려했던 거리에 대한 추억과 산업화기를 거치면서 조성된 거리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현재 도시재생대학과 공동체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빈집(등록문화재)을 활용한 전시 공간을 기획하고 있음
  - 주민이 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시공간은 화려했던 마을의 과거 역사사진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상영할 계획임

## G

- 양림동 1930 양림쌀롱 기획 및 운영 : 문화가 있는 날 지역거점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광주 근대 문화와 양림동 지역 상가, 문화공간을 결합한 플랫폼형 축제를 기획 운영하고 있음
- 사직동 사직통기타거리 골목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행안부 골목경제활성화사업 (2017~2018)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책임연구원으로 참여

## H

- 담양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담빛예술창고 사업을 기획에서 지속운영까지 담당하고 있음



- 광주전남에 도시재생 산업화 현장이 부족하여 직접 예술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이 융복합된 산업화 실험을 추진하고 있음

## I

- 인천의 근대역사도시 개항장 일대를 보존, 주변정비, 활성화 계획을 통해 앵커시설인 인천아트플랫폼을 조성하여 개항장 전체를 재생하는 작업의 기획, 설계, 운영의 총괄 계획을 진행
- 전주의 팔복산업단지에 있는 50년된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쏘렉스 공장을 문화, 예술을 매개로 한 공간재생(팔복예술공장)을 통해 산업단지 재생을 진행하고 있음

## J

- 대표적 문화재생 사업으로는 공공미술, 공간재생, 마을축제 등을 꼽을 수 있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축제를 통해 예술의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어여쁘다공동〉사업을 추진함
  - 거리 내 상인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해 벽화 조성, 불법 주차 방지용 화분 설치 등을 통해 거리의 쾌적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함
- 2015년부터 문화전당 주변의 문화관광자원을 테마로 엮은 도심도보관광 코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도심도보관광코스는 스토리 개발과 무료 해설 서비스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각 코스별 관광거점별 스토리에 맞는 상징물이나 체험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이 코스를 따라 스토리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는데 참여하고 있음

## K

- 대인시장의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 사업 직접 수행

## L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 〈수영성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영도 강깁이예술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하게 됨

- 수영성 사업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하는 생활문화조사와 함께 프로그램 기획을 진행하였으며, 강깁이예술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사무국장으로서 전체 사업을 기획, 진행함. 이를 통하여 마을조사,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부터 공공예술 조성, 공간조성 및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관리, 운영함

## M

- 2010년부터 3년간 진행한 화순 성안마을 일원의 마을미술프로젝트(문화체육관광부) 기획과 사업추진을 진행하였으며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어 화순의 대표축제인 도심속 국화향연 축제장으로도 활용되고 이후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화순 고인돌시장, 화순남산공원 등 마을 일원이 전체적으로 상승효과를 내고 있음

## N

- 1913송정역시장 활성화사업, 과천 새서울 프라자 활성화사업, 군산 영화타운 리노베이션, 제주 원도심 칠성로 리노베이션 스쿨 기획 및 마스터 참여,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심사위원, 동명동 방치된 대중목욕탕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획 등 다수의 프로젝트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 문화재생 사업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

### A

- 프로젝트 매니저

### B

- 〈괘찮아마을〉 사업에 대한 초기 기획부터, 운영, 홍보 등 전체 분야를 총괄함

### C

- 제가 관여한 사업들에서 주로 기획을 맡음
  - 지자체가 파트너가 되어 해당 사업을 통해 도시나 지역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
  - 초기 관계하는 주체들과 관계 맺기에 주력하고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이후 사업계획에 어떻게 잘 반영하여 함께 성과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필요한

### 자원들을 연계하는 일이 주된 역할임

#### D

- 주민들의 참여와 마을학교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 마을협동조합 설립, 마을 브랜드 형성 등 주로 문화재생을 위한 토대 작업에 참여함
- 문화재생을 본격화하기 직전까지 마을리더 양성과 마을 자원조사, 마을 브랜드 마련, 마을 비전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일과 소규모의 마을공동체 사업 도전 지원과 문화재생을 본격화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방향 수립 등을 주로 맡아옴

#### E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예술가, 행정간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에 따른 상호의견 조율
- 남구 전체 주민공모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모색, 아이디어 사업 및 발굴
- 주민공모사업에 의한 소규모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 F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서 자문위원으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조례 제정 등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추진단계(공간의 콘텐츠 적용)에서 자문하게 됨
-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는 공동체 영역의 자문위원으로서 재생아카데미 기획 및 예술가와 상인들의 만남 주선, 경제구조(상업유형)의 변화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G

- 총괄 기획자로 기획 전반을 디렉팅 함

#### H

- 기획단계 아이디어 제안자이자 총감독이며 현재 관장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 I

- 건축가로 기획-디자인-운영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음

## J

-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어여쁘다공동>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 운영하는 총감독을 맡았음
- 문화전당 주변 도심도보관광 프로그램 <아름다운사람길 도심관광트레일>에서는 도보 관광 코스를 설계하고 스토리를 발굴하고, 투어운영 등을 총괄하는 총괄PM을 맡고 있음

## K

- 대인예술시장은 총감독으로 5회 참여
  - 예술가의 참여를 위한 6개월 정도의 레지던스 운영, 계기성 참여를 위한 한평갤러리 전시 운영, 예술가의 작품 판매를 위한 수작이라는 숲의 운영. 야시장을 통해 예술과 시장이 만나는 접점인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별장” 운영, 대인예술시장의 사례 공유와 전국적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포럼 운영

## L

- 생활문화조사 등 지역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주민 커뮤니티 구축 및 민관협력 사업 실행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행정 및 실행을 담당함

## M

- 발산새뜰마을사업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였으며 주로 사업대상지 현장에서 주민과 입주청년, 입주예술가들 간의 소통 및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음
  - 구체적으로는 마을총회 주관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추진, 마을내 사업 담당자들과의 실무회의, 마을사업 현황의 브리핑 등 주로 회의주재, 사업보고 같은 활동들을 주로 함

## N

- 프로젝트 사업단장, 총감독 및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사업기획 및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함

## □ 문화재생 사업에서 겪은 애로점

### A

- 지역 문화재생 사업 기획자 단일화 필요
- 문화재생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의 가치 향상이 이루어져야 됨
- 공공재생 사업이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흘러 엔지니어 용업업체간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음

### B

- 문화적 재생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에 눈에 띄는 기획자/기획들이 없음
- 문화재생을 통해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이 많지 않음
- 주로 공간 조성 위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C

- 가장 기본적인 애로점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마다 이해관계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거나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이 제일 큰 애로임
  -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저마다 자기식으로 해석 이해하고 일방적 요구사항 전달이 빈번하기 때문에 오해 사는 일도 많고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장벽이 되는 일도 벌어짐
  - 따라서 많은 의견수렴과정과 논의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한정된 프로젝트 기간과 행정의 지표화된 성과 달성이 강조되는 상황이 닥치면 이를 우선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그러다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 수행이 되어가기 쉽고, 사업단 일방적인 계획하에 실행되기 쉬워서 결국은 지역적 효과나 주체형성, 지속성 확보에까지 영향을 미쳐 원하는 목표 달성과 성과점에 도달하기 어려워 질 수 있는 현실임
- 무엇보다도 문화재생사업은 사람 중심, 정량화하기 어려운 성과지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정을 튼튼하고 충실하게 잘 수행하는 게 효과가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단기간 내에 환경을 만들고 주체를 형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목표가 아닌 후속 지원 사업들도 함께 고민하는 일이 중요함

## D

- 주민들과 토대 작업을 진행했지만 막상 문화재생이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그동안 주민들의 노력과 자원조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행정이 주도해서 별도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주민 주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용역업체나 전문가가 주도하는 모습이 간혹 나타남. 여전히 주민들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수혜자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이 듦
- 또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나 사무국이 구성되지만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방식이 절대적이고, 주민들의 주체 구성(마을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해지기 마련임

## E

- 소규모사업 단위 또는 벽화사업이 문화재생사업과 주로 연계되어 추진이 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나가는 사업들이 부족한 실정임
- 단순사업으로 단기간에 추진되어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발성 사업이 많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음

## F

- 문화재생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을 잡고 있는 시의원과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문화적 센스(감각)가 없다는 것임. 이런 사업에 있어 중요한 행위주체인 시의원과 공무원의 문화적 센스가 부족하다면, 청년사업가와 예술가들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점이 됨
- 문화예술의 가치를 보는 것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짧은 사업기간 내에 성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문화재생사업이라는 목적을 위해 청년사업가와 예술가들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목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는 1월 초 손해원의원 사업으로 인해 근대역사 문화공간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커지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물론, 거래되는 물건은 없으나 기대심리가 작용한 가격의 오름)으로 세입자(예술가, 청년)이 퇴출되거나(소위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16년부터 만호동에서 활동했던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이 최근 들어 건물주와의 임대료 갈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례가 발생함

## G

- 문화적 도시재생의 목표에 대한 주민/지자체/상인들이 공통된 상을 가지지 못할 경우 상당한 진통을 겪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계없는 이벤트로 예산과 에너지가 낭비될 수 있음
- 행정 편의에 의해 지역 내 이해 관계자들이 주도할 수 있는 집행 구조가 확보되지 않아 대부분 초기에 열정을 가졌던 분들이 빠지고, 행정적인 목표 달성만 남게됨

## H

- 도시재생 사업 지자체의 정치리더십과 행정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단과의 거버넌스가 가장 힘든 일임
- 해외 성공사례와 다른 거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현실임. 사업단과 총감독의 전문가 시선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관의 지나친 간섭과 운영방식은 사업의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함. 반드시 팔길이원칙과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함

## I

- 사업의 방식 : 사업설계는 버팀업 방식이나 실행은 탑다운 방식임. 시간의 숙성이 필요함에도 성과 위주

## J

- 무엇보다도 재생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참여의지가 없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음. 주민들은 공익적 마인드보다는 사적 이익에 우선함. 장기적 이익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본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훼방을 놓는 경우도 있음. 주민들끼리의 다툼과 반목도 심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도 힘든 경우가 많음

- 또한 마을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임. 마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그룹이 꾸준히 마을을 관찰하고 주민과 소통해서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 필요성을 파악하여 세심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데, 문화재생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각기 다르다 보니 기존 마을 기획자그룹은 무시한 채 새로운 외부 기획자를 영입하여 사업을 진행함 - 그렇다 보니 한 마을에 각각의 사업으로 문화기획자가 2-3명씩 활동하는 경우가 생김. 이들끼리 서로 협력하면 이상적인 모습이 연출되겠지만 대부분은 서로 경계하거나 경쟁심이 발동하여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K

- 재원을 가진 행정의 과도한 욕심(야시장의 잦은 운영을 독려함으로서 차별적 요소의 핸드 메이드 시장 질적 하락 및 피로감 증대)
-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재원의 한계로 인한 하드웨어 특히 거점 공간의 구축 실패
- 민간경상보조금이란 제약으로 모든 비용이 소모품 매입으로 이어지며 공유 자산 축적을 하지 못함
- 인적자원이 하는 일임에도 이에 부응한 충분한 인력과 급여가 산정되기 어려움
- 사업 대상지의 원주민(시장 상인)이나 리더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상이한 생각으로 상인은 영리를 추가하고, 이에 부응하자면 예술은 종속화되거나 장식적 요소로 전락되어야 함)

## L

- 우선 사업 실행에 앞서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명확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서 전문가를 비롯하여 주민의 주도적 사업 참여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예술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리를 위한 행정, 예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아울러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실행체계(ex : 사업단)를 명확하게 구축하고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져야 함. 특히 건축가와 같이 문화기획자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함



**M**

-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점으로는 사업 초창기에 청년, 예술가 등의 외부활동가들과 마을의 원주민간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음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 국가지원금이 사업지에 투입되게 되면 자연스레 원주민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적자원들에 대해 예산을 유용하는 세력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우선하여 의심의 시선을 받게됨. 이로 인해 추진해야할 사업에서 꼭 필요한 선택지일지라도 그 결정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음

**N**

- 대부분의 재생사업이 마스터플랜 내에서는 문화적 재생 방식보다는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중심의 발상에서 기획되고 문화기획자, 예술인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업은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현장에서 문화적 재생에 대한 워딩만 있을 뿐 기획 관점과 커뮤니티 참여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업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문화재생 사업에서 문화가 갖는 역할****A**

- 문화재생의 지속성에 기여, 생활문화 확대 및 활성화

**B**

-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문화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함  
- 문화가 없으면 공간 위주, 사람이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만들어서 도시가 변하길 바라지 않음. 작고 소소한 도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선 ‘문화’를 어떻게 도시에 적용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C**

- 문화는 지극히 인간영역에 해당하는 일로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와 노동이 만들어 내는 가치들의 축적이라 정의할 수 있음

- 문화는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환기시키고 일상적 삶에 변화를 불러일으켜 새로운 활력을 생성하며, 개인과 집단의 자존감을 드러내고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공학적인 도시재생 틀 안팎으로 틈새를 만들고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존재론적으로 사고,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으로서도 문화는 위치해 있다고 생각함
- 도시재생을 견인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적합한 매개가 문화라 할 수 있음

#### D

- 문화재생은 주민들이 마을이라는 현장에서 행복하고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원도심에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는 기본 전제이고 바탕이라고 생각함.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 필수사항이라 판단됨. 상당수 사업은 문화사업이기 마련이기 때문임

#### E

- 좁게는 예술(art)로 볼 수 있으나, 넓게는 인간생활의 총체로 볼 수 있음
- 그 지역의 모든 예술, 문화, 역사를 가지는 유무형 사업의 모든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지역의 기초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
- 이러한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은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문화재생 사업에 중요하며 명소화 사업과도 연계 된다고 할 수 있음

#### F

- 문화는 지역의 삶 자체로 재생사업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임
- 특히, 문화는 주민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도 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업과정에서는 콘텐츠와 사람을 움직이는 힘으로 주체들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함

#### G

- 문화적 도시재생은 도시 내 유기성의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문화는 그 매질로서 시민과 예술인,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감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음

**H**

- 문화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뜻함. 만약 예술의 역할이라면 문명에서 필요한 무묘한 인간의 삶과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변화와 풍요로운 다양성, 문명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임
- 해외 경우 예술이 빠진 도시재생은 얼마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성공사례는 예술적 도시재생이라 말할 수 있음

**I**

-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다양성을 제공하고 촉매자 역할을 함

**J**

- 문화는 도시의 민낯을 감추는 화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음. 낯고 허름하고 궁핍했던 장소가 공공미술, 축제,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꽃단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모습이 궁금하여 그 장소를 찾게 되는 것임. 관심이 없던 지역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힘이 문화인 것임

**K**

- 재생 지역 자체의 주민이 지닌 삶을 존중하고 발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 문화가 있는 삶을 일상속에 실천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
-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에서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설계의 중심으로 역할
- 공간과 시간을 읽고 그곳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유일한 통로
-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

**L**

- 지역에 대한 성찰, 다양한 관점의 접근 :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양한 지역의 모습을 드러내어 소통하는 매개의 역할을 함
-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신뢰의 형성 : 일반적인 지역/도시재생 사업과 달리 문화를 통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사업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

- 일상공간에서 문화예술의 참여와 향유 :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M

- 문화재생사업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문화적으로 도시를 재생하느냐, 문화 자체를 재생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물을 취함
- 제가 추진하는 사업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문화를 도시재생의 도구로 활용하는 편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겠음
- 다양한 능력을 가진 청년들과 예술가들을 통해 활력을 잃고 쇠퇴해 가는 원도심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자 문화를 활용했으며 이는 하드웨어로만 추진되어 온 기존의 국토부 주도 재생사업에 비해 질적인 가치 상승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음
-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화재생사업에서 문화는 사업적 가치로서 볼 때 문화 자체가 주가 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윤활제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봄

## N

- 문화는 확산과 공감의 힘을 가지고 있음. 불특정 다수인 대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만족도와 공감을 이뤄내야만 성공적인 재생사업의 수행이 가능한데 문화를 단순히 프로그램 진행방식의 일부로 치환하는 재생사업의 현황이 아쉬움
- 문화적 방식, 문화기반의 커뮤니티, 마케팅, 브랜딩, 운영계획 등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전환의 발상에 문화적 역할이 큼

## □ 문화의 도구화 문제 및 도시 문화재생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 A

- 지리적 구분에 의한 사업간 연계성 부족
- 지자체 문화재생 사업을 위한 준비 부족
- 엔지니어 용역업체에 의한 문화 도구화
- 공무원의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

- 시민, 주민 주도 사업이 아닌 외부에 의한 이식적 사업

**B**

- 어떤 도시도 문화, 기획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광주는 무슨 도시재생 콘셉트일까?” 생각하면 큰 차별점이 없음
- 단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찍어내기 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걱정이 듬

**C**

- 도시재생 사업에서 문화가 도구화 되는 일은 문화를 예술장르로 이해하고 단편적인 하위 프로그램으로서 접근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함
-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대상자를 구별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문화의 도구화 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이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누는 시각과 일치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이분법적 시선은 도시재생은 전문가가 하는 대로 지역민은 따르고 지원해야 한다면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고립과 외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D**

- 도시재생이나 문화재생을 ‘관광도시’로 미리 상정해서 성공의 척도를 외부 방문객 수 같은 정량적 지표로 설정하는 최근 흐름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이라고 판단됨
- 살아가는 주민들이 문화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마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만들어가는 근본적 방향 설정이 다시 필요해 보임

**E**

- 벽화사업 등 하드웨어사업 위주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방 등 수익사업과 일자리창출 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하드사업(마중물)으로 주민들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의 비용이 적은 편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확충 방안과 그 지역의 역사·문화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구상이 필요함

**F**

- 행정의 문화적 센스가 없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라 생각함

## G

-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한 정의가 초기에 명확하게 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주민 여론과 일부 예술인 등 여론 주도층에 의해 사업의 본질과 다른 사업에 소진되는 경향이 강함
- 기간 측면에서 재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3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되어 연속성이 없음

## H

-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비판받고 있음
- 예술가는 집단화되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인근 자산 가치를 올리는 특성이 있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검증된 사실임
- 그들이 활용되는 것은 국내 지자체와 공직사회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의 잘못된 특성 때문임
- 예술가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지에 유치할 방법을 찾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임
- 행정편의적 관치사업이라는 한계를 이미 드러내어 전국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운영을 담보할 수 없으며 다시 폐산업시설, 비어진 공간으로 재생산되고 있음

## I

- 문화, 예술의 속성과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로만 취급하고 있음

## J

- 도시재생 전체 사업비에서 문화프로그램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보니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세심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장소적 맥락과도 맞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이 문제임
- 마을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사업비를 쓰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생을 했다는 시늉만 하는 모양새임. 긴 호흡으로 마을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숨결이 담긴 세심한 공간 디자인이 필요함

## K

- 인력구조의 한계 : 도시재생이라는 휴먼웨어를 독식하는 도시계획이나 건축, 토건 중심의 교수, 전문가의 창궐
  - 이들이 담론과 정책의 방향을 선점함으로써 인류학적 관점에서 지역 읽기나 도시 읽기가 전무한 실정. 이로 인해 각종 토건 사업으로의 변질
  - 문화부와 국토부 간의 사업 형식과 틀, 구조, 프로세스, 피드백에 대한 큰 차원의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도시재생에 대한 몰입도는 강하지만 사업 자체를 읽고 대처하는 방식의 문제점(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센터장의 임명, 그에 부응한 인력의 채용, 형식적인 커뮤니티 구성 및 평가요건에 부합하려는 각종 설명회와 회의, 인력 양성의 문제). 하다 하다 안되면 문화를 동원하여 장식적 요소로 마치려는 태도

## L

- 문화예술을 사업의 주요한 영역(예산 배분 등)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가시적인 성과와 가치에 대한 평가가 부족함. 이는 실제 현장에서 문화적 가치와 의미, 역할에 대하여 존중을 하지 않게 되는 일로 이어짐
- 전문 예술가를 비롯하여 인문, 도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자/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아직까지 기획자/매개자의 역할과 책임/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

## M

-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진했던 사업대상지에서 문화적인 요소들은 실제로 도구처럼 활용되었음. 그러나 도구로서 활용되어지는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이용하고 버린다는게 아니라 문화를 통해 마을 구성원과 그 마을 공동체 안에 녹아 들어간다는 것임
-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행위, 즉 문화관련 종사자와 그들이 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재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속하고 어우러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문화적 시도를 하는 그 행위자들 또한 그 안에서 더 발전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봄
- 이를 저비용에 문화종사자들을 이용해 먹는 것 아니냐는 시선과 비판이 있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를 단순히 문화를 도구로 이용한다고 치부하기 보다는 정당한 대

가와 적절한 존중을 통해 운용되어질 시스템적인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함

## N

- 위에 언급했듯이 문화를 단순히 문화관광의 영역 및 역할로 한정지어 경제적 유발효과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 활용정도로 생각하고 사업 구상이 이뤄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 문화재생 사업에서 각 참여 주체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요 요소

### A

- 사업 기획자 단일화 필요

### B

- 구심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함
- 기계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와 권한의 공유가 꼭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음
- 특히 '기획자'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심점이 되어 거버넌스 구축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C

- 무엇보다 의무감이나 형식을 먼저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면 함
  - 각 참여 주체 간 원만한 관계형성도 되지 않았는데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미션하에 조직부터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역순으로 작은 만남과 모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서로의 지향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경험 이후에 점차로 관계를 확장해가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 서로가 작은 문제 해결이 주는 성취감과 연대감이 기반이 될 때 보다 큰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함
- 민-관-산-학의 거버넌스가 먼저 중요하기 보다는 민-민간 협력과 의견 나눔 테이블의 경험이 향후 거버넌스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됨



## D

- 우선 문화재생의 주체인 주민 주도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임
  - 그동안 사업비 중심의 사업이라는 전제는 필연적으로 주민을 사업의 수혜자, 단순 참여자로 생각하기 쉬움
  - 거버넌스의 큰 틀을 주민(청년, 거주하는 예술인 포함)들이 주도성을 갖고 실행하기 위한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면 좋을 듯함
  - 당연히 행정과 전문가, 용역업체와 시행사의 역할이 크게 중요함. 다만 우선 순위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내가 사는 마을을 문화적인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간다는 원칙을 놓치지 않고 각 주체와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함

## E

- 농촌개발(일반농산어촌)사업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주민협의체라는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은 행정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
- 문화재생 사업은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기획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문화 관련된 예술인과 기획자가 어떻게 사업에 참여하고 그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 F

- 문화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참여 주체의 이해와 협력임. 특히, 문화재생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목포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주민과 행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각 행위주체들간 의견 조율 및 협업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있음

## G

- 거버넌스 내에서 각자의 역할에 부합하는 과제와 실천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 정의와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개인들의 욕망과 단기적 이윤에 의해 거버넌스가 왜곡될 수 있음

## H

-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공직사회에서는 예술가와 서로 50%씩 양보하는 이해심이 필요함
- 공직사회는 매뉴얼 안에서 움직이지만 예술가는 매뉴얼에서 벗어나려는 각자의 특성이 있음
- 주민과의 거버넌스인데 일반인의 의식을 한발 앞서가야 하는 것이 정치행정 리더십과 예술임. 그래서 현실상황 속에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 I

-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체간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 필요

## J

- 도시재생 사업단이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 보수와 신분 보장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단을 중심으로 주민과 예술인, 행정, 중간지원조직이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단을 단일화해야 함
-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재생산을 한 채널로 단일화해서 마을 주민들의 세밀한 욕구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문화기획자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겪는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야 함

## K

- 가장 현실적인 것은 잘 구축되고 이행하는 대상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적용
- 이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지의 원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율을 신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때 참여율은 각 분야별, 주거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등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구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L

- 문화예술 분야 또한 전문분야로서 전문기획자/단체 등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거버넌스 구축이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협의 기구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행체계의 조직과 인력, 예산 배치가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총괄기획자/단체를 정하여 운영할 때 최소한 2~3년 정도의 기간을 보장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후에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사업의 목표/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지역 정체성의 확립, 커뮤니티/공동체의 형성, 혹은 관광활성화인지, 주거환경 개선인지 등 여러 목표가 아닌 1-2개의 중요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M

- 모든 재생사업들은 원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우선순위로 두고 시작함
- 이는 사업초기 원주민으로만 구성되어졌을 때 거버넌스가 추후 문화적 재생이 시도되어진 이후에 사업지에 유입된 예술인, 기획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 종료까지 이어진다는 문제점을 야기함
- 이에 재생사업지구의 거버넌스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과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이 점차 다양해질 것이며, 이들을 무조건 외부인으로 치부하여 적대적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버넌스 안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대처와 이와 관계된 체계가 더해져야 함

## N

- 행정이 힘을 빼고 큐레이터로서 제대로 된 문화전략가와 기획자, 아트 크리에이터를 사업 초기에서부터 함께 논의하면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됨
-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계획서 작성을 의뢰받는 대다수의 업체들은 토목공학 중심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다수임
  - 이 부분에서는 문화적 재생에 대한 깊이와 이해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한 상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도시재생이 탐다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함

- 버팀업 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실제 실행계획과 운영계획 수립 시에 사업 운영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함

□ 문화재생 사업 추진 후 그 결과가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소

A

- 자산화, 공간확보 필요 : 지원, 자립체계 필요
- 차별화, 특수성 이해 : 지역 주민 이해 필요

B

- 사람을 키우는 사업을 해야 함. 현재는 공간에 대한 투자만 있지, 사람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사업을 하고 있음
-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뛰어난 기획자를 지역으로 영입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판을 조성할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문화재생 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됨
- 누군가 의지를 갖고 지원사업 등이 종료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계도 필요함

C

-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한 사람들과 자원의 지속적 생존임
  - 문화재생 사업의 성과로서 자리한 주체들이 얼마만큼 안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조건들을 스스로 생성하고 이를 주변에서 지원,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현실적 지원이 보다 깊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봄

D

- 주민과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주민 예술가가 많이 배출되고 생활 속에서 창조적 작업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해봄
- 초기엔 창조인력이 마을에 들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직접 거주하든 주민과의 교감 속에서 마을 안 문화 활동이 생활로 정착하도록 하는 활동이 기반이 되었으면 함

- 대부분 원도심의 특성이 그렇듯 어르신 중심인 마을을 청년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 작업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보임

## E

-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에 기획 등 사업구상도 중요하지만,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도 매우 중요함
- 문화재생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에 역할 분담, 사업 후의 역할 분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향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 과정과 지역의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요함

## F

- 결국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귀결되는 내용인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 경제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문화예술 행위자의 소득구조도 보장되어야 하고, 나아가 소득이 지역발전에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함
- 목포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근 시민신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 시민신탁은 자산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10년 이상 장기간 자산을 위탁하고 지자체는 이를 관리할 자산관리조직을 설립해 저렴한 비용에 임대하고 수익을 위탁자와 나누는 것임
-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예술가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시민신탁제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음

## G

-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지속성을 가진 지역 문화 브랜드화가 필수적임.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이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파급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

## H

- 예술가를 활용하고 버린다면 사업이 성과로만 끝나고 말지만 지속운동을 위한다면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구성과 환경을 구성하면 됨. 예술가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고 그 속에 주민의 기초경제와 삶의 방식이 풍요로워짐

## I

- 긴 시간과 참여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J

- 도시재생 대상지 주민들의 자생적 환경 개선 의지가 중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자발성을 기대하기는 힘들
  - 이에,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마을에 하나씩 개발해서 그 수익금으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문화재생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K

- 주민 주체의 역량 강화와 선도그룹들의 지속적인 지원 및 활동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지역 내에서도 이를 계승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발굴되어야 함
  - 특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활용되는 유휴공간 등의 매입 및 지속적인 재원 지원 방안과 운영 방안 수립이 백업 되어야 함

## L

- 사업의 결과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이 실행되는 동안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사업을 자립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지원 등이 필요함
- 1~2년의 단기간에 지역에 사업의 결과가 정착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함. 적어도 3~5년 정도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M

-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재생사업의 실패 사례들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투입된 국가예산이 끊긴 이후 다시 말해 4~5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 마을 운영관리, 지속성 확보를 위한 역량과 의식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음
- 이는 사업기간중에는 해당사업의 주무관, 총괄코디네이터 등 여러 관리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스스로 운용을 위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했기에 벌어지는 케이스임

- 또한 대부분 생계를 위해 외부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마을의 대소사와 운영관리를 직접하라고 강제하기에도 무리가 있음
- 성공적인 문화재생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봄
- 문화재생을 통해 마을에 입주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예술인, 청년사업가, 협동조합 등)들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들로는 부족했던 전문적인 역량을 이들을 통해 취하여 그 지역에 활용해야 함
-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이를 통해 지역에 단단한 거점공간을 취하고 주민들은 새로운 마을 구성원들의 재능과 역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N

- 지속가능한 사업운동을 위해서는 보조금 사업비를 소진한 이후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 수립이 중요함
- 그래서 수익구조와 운영자립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이후 활용계획 논의가 초기에서부터 반드시 이뤄져야 함

### □ 기존 지역 문화재생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내용

#### A

- 지자체 예산으로 계획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 확대 필요
- 장소성 발굴을 통해 발굴된 자원을 키우는 구조 부족
- 하드웨어 사업 위주, 관련 부서 연계성 한계 및 사업 일관성 부족
- 문화기획자에게 총괄기획자로서 권한 부여 필요

#### B

- 이제는 공간 조성 위주 사업은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함
-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지,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해 매력 없는, 전국 어디든 똑같은 도시로 만드는 재생 사업은 이제 멈추어야 함
- 단기간 진행되는 사업이 끝나더라도 사람이 남는 기획/사업을 위해선 그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유성을 더 확보해야 함

### C

- 구성원들의 자발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것이 확인되었을 때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어떤가 하는 것임
- 사업 종료 이후 성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과감한 후속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아직까지 사업전 계획만을 평가하여 일괄 지원하고 엄격한 정산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 사업이 종료되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게 현실임
  - 따라서 성과를 확인하고 이것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성과 유지 확산 차원의 보다 자율적인 효율적 지원이 뒤따르면 어떨까 싶음

### D

- 사업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그렇지만 사업 중심의 사고로 운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사업비 집행이라는 속도 중심의 사업과 행정 주도의 결과를 접하게 됨
- 사업비 기간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연장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함. 준비과정을 튼튼히 하는 것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또한 중간지원조직 안에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었으면 함.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넉넉히 확보해야만 하고 이는 밀착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가능해 보임

### E

- 행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들이 건설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비슷하거나 연계한 사업 등 중복적이거나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음
-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권이 바뀔때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명칭과 사업내용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행정 내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달라 사업추진에 있어서 행정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사업 추진시에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협의체 구성도 필요함

## F

- 지자체는 문화재생사업을 단순히 국비를 받기 위한 것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문화를 통해 어떻게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의 방향성과 추진과정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
- 특히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속도를 자극하는 정책적 모델을 지양해야 함

## G

-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문화적 도시재생을 지자체 문화예술부서 중심으로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해 참여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협업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함
- 사전 소액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적 재생의 구상을 추진한 후 본 예산이 점진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야 함

## H

- 사업단 구성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공적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국비 현터에 다름 아닌 일부 비전문 기획자들 때문임
- 가능한 예술을 잘 아는 기획자 주도로 사업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선임되면 지자체에서 팔길이 원칙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함. 또한 계약도 성과에 대한 상벌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함
- 국내의 실패사례를 적용하기보다 전세계 흐름을 파악하고 벤치마킹하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해 보임

## I

- 동시다발적인 사업이 펼쳐지기 보다는 파일럿 개념의 사업시행 후 단계적인 실행이 필요

## J

- 이벤트성 문화재생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 조성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는 문화 재생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함
  - 임대료 지원, 공간 리모델링 비용 지원, 창업 아이템 개발비 지원 등 공간을 통해 수익을 내고 마을로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간조성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 문화기획자 인력관리제 도입 필요
  - 공공미술 예술가, 문화기획자, 관광기획자, 도시재생 전문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인력들의 이력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관리하고 이 이력에 맞게 보수를 책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이들을 투입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전문성이 확보된 문화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 K

- 도시재생센터 내의 조직 구조 내에 문화활동 신장을 위한 문화분과나 팀을 직제에 편성
- 도시재생 사업 계획 내에 지역의 문화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완 계획을 탑재한 계획의 수립에 가산점 부여
- 문화영향평가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효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정책적 합의와 강제적 이행 조항이 필요

## L

- 현재 국토부가 도시재생에서 총괄기획자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처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아울러 지자체 스스로 지역현황을 반영한 조례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재생은 단순히 예술가뿐만 아니라 건축/도시, 인문, 지리, 교통, 환경, 복지, 관광 등 다양한 영역이 총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각 부서별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함

## M

- 도시재생사업의 이상적인 목표는 재개발이 아닌 원도심의 활성화임
- 정량적인 지표를 두고 공실률을 얼마나 낮추며 거주민을 늘리냐 하는 숫자에 연연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싶고, 살 수 있

는 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분명한 사업이기에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은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봄

- 지자체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최근 들어 공간활성화와 이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두는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일 것임
- 현재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적 공간활성화 사업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더해져야 하는 시점임
-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지속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하고 이들을 지원하여 단순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치중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봄

## N

- 문화적 재생이라 해서 문화전시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님. 문화전시시설을 계획하더라도 소비자와 이용객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복합시설로의 발전을 그리고 사업 운영과 진행 방식에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운영계획이 아닌 전문 역량과 청년 참여를 고민해야 함

□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방향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

## B

- 다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광주 밖에서 더 많이 영입해 지역 분위기를 전면적으로 환기해야 함
- 또한 우선적으로 ‘청년’기반 사업을 조성해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기획부터 진행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현재는 기획을 만드는 건 중장년층인데 사업의 하도급에서 권한 없는 업무만 청년들이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함

## C

- 문화재생사업에서 초창기에 많이 다루지만 이후 활용이 전무한 지역(대상지)에 대한 문화적, 인문적 아카이브 사업이 무엇보다 강화되었으면 하고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으면 함

- 재생(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매개하는 과거와 미래의 시·공간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보다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생산 될 수 있기 때문임. 재생사업의 뿌리와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D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맞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광주라는 잊혀진 근대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활동과 콘텐츠, 각 마을(혹은 행정동, 법정동)마다 가지고 있는 마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만들어내는 세 가지 방향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함
- 많은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함. 창조인력이 문화재생에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작업공간 등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임
- 청년의 참여가 중요하리라 봄. 문화기획자로 커나가는 청년들이 도시재생 현장에 결합해 마을주민과 협업하는 활동이 강화되었으면 함
-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강화임. 문화재생의 지속성은 주민과 청년, 예술가들이 최고 결사체인 마을문화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으로 법인 구조를 마련해야 가능하리라 봄

#### E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천시의 경우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읍성 살리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의 경우 동구의 아트폴리사업과 연계한 옛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볼거리, 체험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남구의 경우 사직동 향교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구현과 통기타 거리의 활성화 등 옛문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의 조화와 양림동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선교문화와 근대 역사문화유적을 정비 및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통기타거리~사직동 향교~최승효가옥~선교사유적지~근대건축물~펍권마을~사직·양림동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 송암공단(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남선연탄 인근을 문화·창작 예술촌으로 조성하여 아시아문화전당~양림동공예촌~송암산단~김대중컨벤션센터~비엔날레를 연결하는 문화관광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문화관광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 F

- 광주는 문화수도라는 도시브랜드가 강한 곳으로 문화적 역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행위주체들의 DB화가 필요하며, 그들과의 관계구조를 파악해야 함. 공간중심의 관계구조 파악을 통해 문화재생사업에서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어야 함
- 문화단체들의 권력화 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문화재생사업에서 권력화 된 문화단체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있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활동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대규모 문화재생사업보다는 소규모 문화재생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함.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이 마을공간에 내재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문화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주체들의 비즈니스 모델(BM)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함

## G

-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아시아 지역과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 협력 프로젝트 추진

## H

- 광주광역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하신 문화예술도시로서 예술역량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해야 함
- 대구는 오페라 등의 양악, 부산은 영화산업, 전주는 전통국악, 이런 도시 특성을 각자가 특화시켜야 함. 행사를 겹치게 진행하며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닌 반감시키는 방식은 상생이 아닌 서로 죽자고 하는 일임
- 광주는 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 아트 창도시, 광주 국제아트페어,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등의 시각예술 행사가 많아 기본 인프라가 세계 어느 도시에 비해 우수함. 그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미래에 사라질 굴뚝산업에만 매달리고 있음
-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 당장의 성과만 보고 있는 것임. 유럽의 18~20만 이내 소도시는 시각예술 행사 하나로 연간 수백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우리는 유럽의 그랜드 아트 투어 못지않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고 있음

- 이 시각예술 행사를 인근 전남과 상생모델로 삼아 ‘담양의 예술촌’과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목포 수목비엔날레’와 연계된 동선을 만들어 관광과 융복합된 산업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봄
- 도시재생 역시 이와 결을 함께 해야 하며 ‘도시재생 및 개발’+문화예술+관광이 융합된 산업화가 광주전남이 상생하며 미래를 해쳐 나갈 성장동력임

## J

- 광주는 타 도시에 비해 산업자원이 부족함. 그에 대한 대안으로 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광주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자 미진함
- 이에, 문화재생 사업은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지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현재까지는 광주프린지, 청년축제, 공동축제 등 이벤트성 축제 사업에 문화재생 사업비를 소모하고 있음. 이벤트성 사업은 신기루처럼 사업이 종료되면 남는 것이 없어 문화재생의 한계를 갖게 됨
- 5·18의 도시 광주는 5·18 사적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박제화된 공간으로 또는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음. 5·18 사적지를 다크투어리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생이 필요함
- 또한 마한 문화권의 상징인 신창동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신창동 유적에 마한 문화권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문화재생이 필요함

## K

-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표방하면서도 주민주체의 문화가 부재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현대사의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인 만큼 현대사를 사업 내에 탑재하여 진행하는 방식 고려 필요
-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운영방식임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생활형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광주시에 문화부시장 제도를 운영하여 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듯, 도시재생 조직에 문화 활동가, 기획자, 전문인력 등의 참여 기회 보장

**L**

- 광주는 풍부한 자원과 사람이 많다는 점임
- 따라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는 것보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따라가기 보다는 현재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움직임들,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잘 지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거점을 구축해내는 것을 중요한 사업의 비전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N**

- 인구감소, 저출산, 청년유출임. 모든 사업에 최우선 과제를 이 아젠다를 놓고 고민하고 무분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이후 지역을 역으로 옥죄는 상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함

## 2. 의견조사 결과 분석

### 1) 문화적 재생사업과정에서 겪은 애로점

- 행정의 지표화된 성과 달성이 강조되어 사업을 위한 사업 수행이 됨으로서 지역적 효과, 주체형성,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지자체 등이 공통된 상을 갖지 못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계없는 이벤트로 마무리되어 예산과 에너지만 낭비될 수 있음
- 주로 공간 조성 위주 사업으로 프로그램과 연계를 고려하는 부분이 개선될 필요
- 문화재생사업은 사람 중심에 초점을 두고, 결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과정을 튼튼하고 충실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 종료가 목표가 아닌 후속 지원사업들을 함께 고민해야 함
- 단기간에 추진되어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발성 사업이 많음
- 그동안 주민들의 노력과 자원조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 행정이 주도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이 주체라기보다는 수혜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 문화재생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의 가치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지역 문화재생사업 기획자 단일화 필요
  - 지역에 눈에 띄는 문화기획자들이 보이지 않음. 문화적 재생을 통해 '사람'을 키울 필요가 있음
  - 전문가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나가는 사업이 부족함
  - 문화재생사업에서 청년들과 예술가들이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경향이 있음
- 문화재생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문화적 감각이 없다는 데 있음
  - 문화예술의 가치를 보는 것 보다 짧은 기간내 성과를 정량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
- 사업대상지의 지대 상승으로 세입자인 예술가, 청년들이 등지내몰림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 행정의 팔길이 원칙이 고수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사업설계는 바텀업 방식이나 실행은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사업 대상지의 원주민이나 리더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음



- 사업 초창기에 청년, 예술가 등의 외부활동가들과 마을의 원주민간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큼
- 예술은 종속화되거나 장식적 요소로 전락될 수 있음
- 문화적 재생 방식보다는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이 있어 현장에서 문화적 재생에 대한 위당만 있을 뿐 문화적 기획관점과 관련 커뮤니티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술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리를 위한 행정, 예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실행체계(예: 사업단)를 명확하게 구축하고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부여해야 함. 이와 함께 건축가와 같이 문화기획자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 문화재생사업에서 문화가 갖는 역할

- 문화재생사업의 지속성에 기여하며, 생활문화 확대 및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문화가 없으면 공간 위주, 사람이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빠질 수 없는 요소임
- 일상적 삶에 변화를 불러일으켜 새로운 활력을 생성하며, 개인과 집단의 자존감을 드러내고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도시재생을 견인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적합한 매개가 문화라 할 수 있음
-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의 기초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은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문화재생사업이 될 수 있음
- 주민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도 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업과정에서 콘텐츠와 사람을 움직이는 힘으로 주체들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함
- 문화적 도시재생은 도시 내 유기성의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문화는 그 매질로서 시민과 예술인,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감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 다양성을 제공하고 촉매자 역할을 함
  - 재생 지역 자체의 주민이 지닌 삶을 존중하고 이를 발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에서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설계의 중

### 심 요소로 기능

- 공간과 시간을 읽고 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유일한 통로
-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문화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해 사업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함
- 문화는 사업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윤활제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봄
- 문화는 확산과 공감의 힘을 갖고 있음
  - 문화를 단순히 프로그램 진행방식의 일부로 치환하는 재생사업의 현황은 개선되어야 함
- 문화적 방식, 문화기반의 커뮤니티, 마케팅, 장소브랜딩, 사업 운영계획 등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발상의 전환에 문화가 핵심적 역할을 함

### 3) 문화의 도구화 및 도시 문화재생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한 정의가 사업 초기에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여론 주도층에 의해 사업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음
- 문화를 단편적인 하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음
-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대상자를 구별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문화의 도구화 문제가 발생함
  - 엔지니어 용업업체에 의한 문화의 도구화
- 지자체의 문화재생 사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공무원의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 및 시민 주도사업이 아닌 외부에 의한 이식적 사업 성격이 강함
- 성공의 척도를 외부 방문객 수 같은 정량적 지표로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빚어지는 문제
- 비가시적인 성과와 가치에 대한 평가가 부족함. 이는 실제 현장에서 문화적 가치와 의미, 역할에 대하여 존중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짐
- 전문 예술가를 비롯해 인문, 도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획자/매개자의 역할과 책임,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재생은 살아가는 주민들이 문화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마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만들어간다는 근본적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를 위해 문화시설의 확충 방안과 그 지역의 역사·문화사업과 연계한 사업 구상이 필요함
- 문화, 기획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똑같이 찍어내기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큼
- 예술가를 사업지에 유치할 방법을 찾는 것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마을에 대한 처절한 고민 없이 사업비를 쓰기 위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문화재생을 했다는 시늉만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긴 호흡으로 마을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숨결이 담긴 세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자체의 도시재생에 대한 몰입도는 강하지만 사업 자체를 읽고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음
  -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센터장 임명, 인력 채용, 형식적인 협의체 구성, 평가요건에 부합하려는 각종 설명회, 인력 양성 등
- 문화를 단순히 문화관광의 영역 및 역할로 한정짓고 경제적 유발효과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 활용 정도로 생각하고 사업 구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음

#### 4) 문화재생사업에서 참여 주체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요 요소

- 총괄기획자/단체를 정해 운영할 때 최소한 2~3년 정도의 기간을 보장하고 사업 이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지원이 필요함
- 기획자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심점이 되어 거버넌스 구축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됨
- 작은 만남과 모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서로의 지향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경험을 쌓은 이후에 점차 관계를 확장해가는 방법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 문화재생의 주체인 주민 주도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우선순위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내가 사는 마을을 문화적인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간다는 원칙을 놓치지 않고 각 주체와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함
- 문화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참여 주체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 특히 문화재생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거버넌스 내에서 각자의 역할에 부합하는 과제와 실천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 정의와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 문화 관련된 예술인과 기획자가 어떻게 사업에 참여하고 그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 주민들의 세밀한 욕구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겪는 반복적인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게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원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각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관점에 기반한 구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과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안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대처와 이와 관련된 체계가 더해져야 함
- 행정이 힘을 빼고 사업 초기부터 문화전략가와 기획자, 아트 크리에이터와 함께 논의하면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바텀업 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실행계획과 운영계획 수립 시에 사업 운영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함
-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공직사회에서는 예술가와 서로 반반씩 양보하려는 이해심이 필요함

## 5) 문화재생사업 추진 후 사업결과가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 사업추진하기 전에 주민들간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자산화, 공간확보 필요, 자립체계 필요
- 외부에서 뛰어난 기획자를 영입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판을 조

### 성해야 함

- 누군가 의지를 갖고 지원사업들이 종료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연계방안이 필요함
- 문화재생사업의 성과로서 자리한 주체들이 얼마만큼 안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조건들을 스스로 생성하고 이를 주변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주민과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주민 예술가가 많이 배출되어 생활 속에서 창조적 작업들이 펼쳐질 수 있으면 함
-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와 창업, 작업공간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보임
-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 기획 구상도 중요하지만,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도 매우 중요함
- 문화예술행위자의 소득구조도 갖춰져야 하고, 나아가 소득이 지역발전에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민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시민신탁은 자산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10년 이상 장기간 자산을 위탁하고 지자체는 이를 관리할 자산관리조직을 설립해 저렴한 비용에 임대하고 수익을 위탁자와 나누는 것임
-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지속성을 가진 지역 문화브랜드화가 필수적임.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이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
- 지속운영을 원한다면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구성과 환경을 구성해야 됨. 예술가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고 그 속에 주민의 기초경제와 삶의 방식이 풍요로워질 것임
-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마을에 하나씩 개발해 그 수익금으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문화재생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 사업의 결과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이 실행되는 동안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기간에 사업을 자립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재생사업의 실패 사례들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투입된 국가예산이 끊긴 이후 주민들 스스로 마을 운영관리, 지속성 확보를 위한 역량과 의식 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사업기간중에 해당사업 공무원, 총괄코디네이터 등 여러 관리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스스로 운영을 위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했기에 발생한 결과임
- 문화재생을 통해 마을에 입주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예술인, 청년사업가, 협동조합 등)들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들은 부족했던 전문적인 역량을 이들을 통해 얻음으로써 그 지역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이를 통해 지역에 단단한 거점공간을 취하고 주민들은 새로운 마을 구성원들의 재능과 역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보조금 사업비를 소진한 이후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 수립이 중요함
  - 수익구조와 운영자립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이후 공간 등의 활용계획 논의가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함

## 6) 기존 지역 문화재생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내용

-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지,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해 매력 없는, 전국 어디서든 똑같은 도시로 만드는 재생사업은 이제 멈추어야 함
-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권이 바뀔때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명칭과 사업내용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임
-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 확대 필요
- 장소성 발굴을 통해 발굴된 자원을 키우는 구조 부족
- 문화기획자에게 총괄기획자로서의 권한 부여 필요
- 단기간 진행되는 사업이 끝나더라도 사람이 남는 기획/사업을 위해서 그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유성을 더 부여해야 함
-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확인되었을 때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고려
- 사업 종료 이후 성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과감한 후속 투자 필요

- 사업비 기간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연장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함. 사업준비 과정을 튼튼히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중간지원조직 안에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었으면 함
- 행정내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달라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사업 추진시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 문화재생사업을 단순히 국비를 받기 위한 것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문화를 통해 어떻게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의 방향성과 추진과정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더 필요함
-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려하는 정책적 모델은 지양되어야 함
- 사전 소액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적 재생의 구상을 추진한 후 본 예산이 점진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야 함
  - 동시다발적인 사업이 펼쳐지기보다는 파일럿 개념의 사업시행 후 단계적인 추진 필요
- 기획자 주도로 사업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선임되면 팔길이 원칙에 근거해 적극 지원해야 함
- 이벤트성 문화재생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 조성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는 문화재생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함
  - 임대료 지원, 공간 리모델링 지원, 창업 아이템 개발 지원 등 공간을 통해 수익을 내고 마을로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됨
- 문화기획자 인력관리제도 도입 필요
  - 공공미술 예술가, 문화기획자, 관광기획자, 도시재생 전문가 등 지역의 도시재생관련 인력들의 이력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관리하고 이 이력에 맞게 보수를 책정하고, 도시재생사업에 투입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전문성이 확보된 문화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도시재생센터 내의 조직구조에 문화활동 신장을 위한 문화분과나 팀을 편성
- 국토부가 도시재생에서 총괄기획자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처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지자체 스스로 지역현황을 반영한 조례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생은 단순히 예술가뿐만 아니라 건축/도시, 인문, 지리, 교통, 환경, 복지, 관광 등 다양한 영역이 총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각 부서별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다양한 문화적 공간활성화 사업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임
- 지속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하고 이들을 지원하여 단순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치중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임
- 문화전시시설을 계획하더라도 소비자와 이용객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복합시설로의 발전을 그리고 사업 운영과 진행 방식에 전문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7)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방향이 나 사업에 대한 의견

- 다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재들을 광주 밖에서 더 많이 영입해 지역 분위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야 함
- 우선적으로 ‘청년’기반 사업을 조성해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기획부터 진행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역에 대한 문화적, 인문적 아카이브 사업이 무엇보다 강화되어야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맞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광주라는 잊혀진 근대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활동과 콘텐츠, 각 마을마다 갖고 있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만들어가는 사업 추진
- 아시아지역과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창조인력이 문화재생에 핵심이 될 수 있게 작업공간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문화기획자로 성장해가는 청년들이 도시재생 현장에 결합해 마을주민과 협업하는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생의 지속성은 주민과 청년, 예술가들이 마을문화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으로 법인 구조를 마련해야 가능할 것임



- 공간중심의 관계구조 파악을 통해 문화예술 주체들이 참여 가능한 루트를 만들어줘야 함
- 문화재생사업에서 권력화 된 문화단체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있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활동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대규모 문화재생사업보다는 소규모 문화재생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함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청년축제, 공동축제 등 이벤트성 축제 사업에 문화재생 사업비를 소모하고 있음. 이벤트성 사업은 신기루처럼 사업이 종료되면 남는 것이 없어 문화재생의 한계를 갖게 됨
- 문화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주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함
-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운영방식을 갖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활형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도시재생 조직에 문화활동가, 기획자, 전문인력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움직임들,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잘 지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거점을 구축해내는 것을 중요한 사업의 비전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
- 계획성 없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게 지역의 여건, 미래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을 계획해 추진해야 할 것임

### 3. 정책 세미나 주요 결과

□ 2019년 6월 27일 ‘지역 문화재생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광주 지역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광주지역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세미나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제안

○ 행정의 지원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 필요

- 문화적 재생은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삶을 재생하는 것임
- 행정의 지원이 문화적 재생사업이 동력을 얻고 추진될 수 있게 보조자 역할을 해야 함
- 문화적 재생사업 수립에 관련 주체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
-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관의 입장이 아닌 사업 대상지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자 우월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현장 활동가와 정책입안자 의견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임
- 보여주기식 예술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터무니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됨
- 지역 문화재단 등이 직접 관여하기보다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문화적 재생 지속성을 위한 제안

- 문화적 재생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주민이 갖고 있는 심층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것이 필요함. 현실에 기초한 미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청년 인력이 유입되기 위해 사업지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기획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외부인에 대한 우정과 환대의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문화적 재생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됨
- 가시적 성과보다 비가시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생활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필요

- 보조금 중단 이후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연계사업 등 발굴 필요
- 문화적 재생 담당자 불박이 근무가 가능하게 인센티브 부여
- 문화적 재생사업에 있어 외부로부터 인력이 투입되기보다 주민과 주요 주체가 중심이 되는 전문인력을 구성해 이들을 키워가는 작업이 필요함
- 장비의 공유 공간형태의 공유센터 조성을 통해 전시, 공연, 발표회 등이 가능하게 환경 조성 필요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안정화시키고, 이들 기업들이 현장 유지라는 지향점에서 벗어나 운영과 관리, 성장과 확장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 육성 방향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간, 인력, 문화프로그램이 서로 연계되는 구조를 갖게 초기에 사업의 방향성을 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VII

#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정책 방향 및 추진단계





## VII

#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정책 방향 및 추진단계

### 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sup>34)</sup>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2020년 2월
- 총사업비 : 600만원
  - 휴먼웨어 : 전문인력 인건비, 팀 운영비
  - 소프트웨어 : 사업 진행비, 강사비, 홍보비, 공과금, 운영관리비
  - 하드웨어 : 공간 디자인 설계비, 디자인, 시공비
- 현황진단 및 분석결과



출처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사업실행계획서(2019, 광주광역시 동구)

〈그림 VII-1〉 시대별 예술의 거리 공간 기능의 변화

- 도청 이전을 비롯한 주변 관공서 이전에 따른 도심 상권 지속적 쇠퇴
- 현재 22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대부분 예술상품 서비스업으로 '예술가 없는 예술의 거리'라고 할 수 있음

34)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사업실행계획서(2019, 광주광역시 동구) 인용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시설 앵커시설 리노베이션, 예술의 거리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 등의 노력을 진행할 예정임

○ 사업대상지 현황도



〈사업대상지 주요 시설과 연계사업 현황〉



〈핵심시설(공공공간)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



○ 사업대상지 하드웨어

〈궁동예술두레마당(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궁동 54-3번지 일원(A=1,223.1㎡)</li> <li>◆ 규모 : 신축1동(3층), 리모델링1동(4층) / 연면적 1,337.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동 : 무등갤러리(확장), 교육·체험실, 공연장, 궁동마루(야외 공연장)</li> <li>- 리모델링동 : 북카페, 아카이빙관, 레지던시공간, 다목적실, 옥상정원</li> </ul> </li> <li>◆ 공사기간 : 2018. 4. 20. ~ 2019. 6.</li> <li>◆ 총사업비 : 5,257백만원</li> <li>◆ 추진목적 : 예술의 거리에 활력과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소화 시민참여 예술사업 플랫폼</li> </ul>
	
〈국립아시아문화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옛 전남도청 일원</li> <li>◆ 규모 : 전체 부지면적 134,815㎡/ 연면적 161,237㎡</li> <li>◆ 주요시설(융복합 문화예술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원, 교류원, 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li> <li>※ 보존건물(6개동) : 옛 도청 본관, 별관, 회의실, 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li> </ul> </li> </ul>
〈전일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광주 동구 금남로 245</li> <li>◆ 규모 : 지하 1층 지상10층, 연면적 1만9321㎡</li> <li>◆ 총사업비 : 484억원&lt;국비(130억원) 시비(354억원)&gt;</li> <li>◆ 공사기간 : 2019.2.18.(리모델링기공식)~2020.3.(개관)</li> <li>◆ 주요내용 : 역사를 기억하는 시민 역사문화복합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당시 헬기 사격 흔적 원형 보존</li> </ul> </li> </ul>
〈오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42 외 4필지</li> <li>◆ 규모 : 대지면적/연면적:1407.2㎡(426평)/287.25㎡(건물 3동)</li> <li>◆ 건물연도 : 1864년(추정, 건축물 상량 확인)</li> <li>◆ 사용용도 : 문화공연장, 한옥체험업, 연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한말 최원택이 1864년에 지은 77칸 집 일부(추정)</li> <li>- 1930년대 영화 &lt;무정&gt;을 제작하여 배우들 숙박</li> </ul> </li> </ul>

### 〈비움박물관〉



- ◆ 위치 :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42 외 4필지
- ◆ 사용용도 : 전통 민속품 20,000여점 전시
  - 인문학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콘텐츠 I - 예술프로젝트 〈광주폴리〉



광주폴리 III 위치도

- ◆ 구도심 속 건축물, 공간, 시설물에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활용하여 광주만의 명소를 만들어 도심 내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구도심 재생 활성화에 기여함
- ◆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기획·시작되어 I 단계 '광주의 문화풍경'을 주제로 하여 옛 광주읍성(문화전당권) 성곽의 흔적을 따라 10여 곳에 폴리가 건립 됨
- ◆ 이후 '공공공간이 가진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주제로 한 II 단계, '도시의 일상성 - 맛과 멋'을 주제로 한 III 단계 폴리까지 7년에 걸쳐 완성됨

### 콘텐츠 II 푸른연극마을 시어터 연바람



- ◆ 동명동에 연극 전용 극장 운영(매년 60회 이상 공연)
- ◆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연극계 투신 외길을 걸어옴
- ◆ 연극 외 뮤지컬, 춤(우리춤·현대무용), 음악콘서트, 살롱오페라, 국악연주, 창극 등 각 예술장르의 고유특성을 지닌 개성 있는 공연과 예술 장르간의 크로스 또는 협연을 통한 새로운 양식의 공연예술을 탐구·창작하고 있음

### 콘텐츠 III 동명동 카페거리



- ◆ 50여개의 소규모 커피전문점 밀집
- ◆ 조선대, 학원가의 젊은 층 유입
- ◆ 공방, 갤러리 등 문화관련 시설 유입 증가 추세
- ◆ 광주의 경리단길 〈동리단길〉이라 불리움

### 콘텐츠 IV 대인예술 야시장



- ◆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시장
- ◆ 문화예술 풍물시장, 레지던스, 창작소, 아트상품, 한평 갤러리 등 분포
- ◆ 별장프로젝트 운영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관련 볼거리제공

○ 사업 대상지 소프트웨어 - 주변 연계 콘텐츠

○ 문화예술축제

-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되는 상설 문화예술축제는 약 5개가 있으며, 충장로, 금남로, 아시아문화전당 등 일원에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상설 축제 외에도 동구 일대에서 크고 작은 문화예술 공연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음

축 제 명		기간	장 소	주요 행사
추억의 충장축제		매년 10월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문화전당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규모 거리퍼레이드</li> <li>◆ 추억의 테마관 운영</li> <li>◆ 추억테마 체험프로그램 등</li> </ul>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매년 4~12월 (매주 토)	금남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래시몹 퍼포먼스</li> <li>◆ 버스킹 공연 등</li> </ul>
어여쁘다 공동		매년 4~10월 (매주 토)	예술의거리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체험프로그램</li> <li>◆ 문화예술 등 공연</li> <li>◆ 갤러리 투어 등</li> </ul>
ACC월드뮤직 페스티벌		매년 8월	아시아문화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음악공연 등</li> </ul>
조선대학교 장미축제		매년 5월	조선대 장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동아리 밴드 등 음악 공연</li> </ul>
트렁크 틴(teen) 페스티벌		매년 10월	원도심(전당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구 청소년 예술종합축제</li> <li>◆ 청소년 경제체험</li> <li>◆ 플리마켓 운영</li> <li>◆ 재능기부 공연</li> </ul>

○ 사업 주요내용

- 휴먼웨어 : 예술로 운영
- 소프트웨어 : 예술로 아카이브 리포트 제작 지원, 예술로 라이브러리 운영, 예술가 길잡이 프로젝트, 예술로 새터 데이, 예술로 테이블, 빛의 숲에서 예술로
- 하드웨어 : 예술창업 키움관 조성

〈표 Ⅶ-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내용<sup>35)</sup>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가. 예술로 아카이브 (Archive)	소프트 웨어	예술로 아카이브	- '예술의 거리'의 상징성과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아카이브 기획 지원 실행
		예술로 라이브러리 운영	- 시민들에게 쉼의 공간을 제공하며 로컬 예술사 및 예술관련 전문 서적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책기부 프로젝트 실행
나. 예술로 랩 (Lab.)	하드 웨어	예비 예술가 길잡이 프로젝트 '예술가의 첫걸음'	- 관·학 연계 지역 예술 대학생의 예술가 입문과 성장을 돕는 현장형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예술로 창업 키움관	- 예술의 거리 내 유휴 공간이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예술 기반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전 효과적인 점포 운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동 실습 공간 조성·운영
다. 예술로 스퀘어 (Square)	소프트 웨어	예술로 새터 데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시민들이 공간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즐김
라. 예술로 넷 (Net)		예술로 테이블	- 예술로 자립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주체들 간 협의체 운영
		빛의 숲에서 예술로	- 아시아문화전당 예술 및 교육 콘텐츠 초청 및 교류·유통 기회 마련

## 2.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 사업명 : 광주 남구 '달피 달팽이 문화마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sup>36)</sup>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2020년 2월

35)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사업실행계획서(2019, 광주광역시 동구청) 자료 인용

36)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사업실행계획서(2019, 광주광역시 남구) 자료 인용

○ 총사업비 : 600만원

- 휴먼웨어 : 마을공동체 혁신포럼, 사업단, 바로 소통방, 골목연구소
- 소프트웨어 : 골목학교, 역사박물관, 달팽이 창안학교, 골목 축제, 리빙랩 프로그램
- 하드웨어 : 마을문화지도, 역사박물관, 슬로우 전망대
- 컨설팅 : 협력기관 컨설팅, 회계컨설팅

○ 현황진단 및 분석결과

- 1990년대까지 호남 최대 시장이었던 양동시장 상인들이 다수 거주했던 풍요로운 마을이었으나, 시장의 쇠퇴와 신도시 형성 등으로 마을이 낙후됨
- 국토교통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새뜰마을 사업’ 추진 중으로 기초 생활 기반 개선 등의 인프라 개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통해 마을을 창의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사업 추진 예정

○ 사업대상지 현황도



출처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사업실행계획서(2019, 광주광역시 남구)



- 사업대상지 제1구역은 주로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복잡한 골목길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거주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제2구역은 아파트밀집지역과 단독주택이 혼재해 있으며, 광주MBC가 자리잡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제3구역은 제1구역 보다는 생활환경여건은 더 좋다고 볼 수 있으나 각종 생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

### ○ 사업대상지 하드웨어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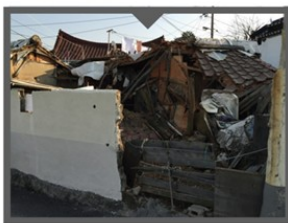


1980년대



1990년대

〈양동시장의 배후 마을로 조성되었으나 1990년대 도시 재개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도시 취락 지역으로 남은 달동네〉



〈공폐가가 많고 경사면에 조성된 골목 단독주택들이 많아 옹벽 무너짐, 화재와 범죄 우려가 많은 달동네〉

○ 사업대상지 소프트웨어

	<p>양동시장과 5·18 주먹밥은 민주화의 성지 도청에 가장 가까운 시장이 양동시장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연유가 있음</p>
	<p>달동네 월산동(月山洞)은 높은 곳에 있어 역설적으로 광주에서 무등산과 도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점 동네임</p>
	<p>광주문화방송주식회사(光州文化放送株式會社) (약칭 광주MBC)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북부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국임</p>
	<p>광주시 남구 월산동 100 덕림사에 있는 광주 유형문화재 제 27호</p>

○ 사업 주요내용<sup>37)</sup>

- 휴먼웨어 : 마을공동체 혁신포럼, 사업단, 바로 소통방, 골목연구소
- 소프트웨어 : 골목학교, 역사박물관, 달팽이 창안학교, 골목 축제, 리빙랩 프로그램
- 하드웨어 : 마을문화지도, 역사박물관, 슬로우 전망대
- 컨설팅 : 협력기관 컨설팅, 회계컨설팅

〈표 Ⅶ-2〉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내용

사업제목	사업내용	구분
마을 일자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공동체 혁신 포럼</li> <li>·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단</li> <li>· 달달한 바로 소통방</li> <li>· 골목연구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디자인 문화 마을 협의</li> <li>· 문화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li> <li>· 마을 소통방으로 분쟁 해결</li> <li>· 청소년 마을 조사단</li> </ul>
달달한 낭만 골목(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학교 운영</li> <li>· 역사박물관 아카이브</li> <li>· 달팽이 창안학교(협동조합)</li> <li>· 달빛 골목 축제</li> <li>· 리빙랩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시인, 사진 학교</li> <li>· 리빙랩 프로젝트 연구 영역</li> <li>· 달뫼마을, 디자인, 마을가꾸기</li> <li>· 목수 사업단, 소셜 임팩트</li> <li>· 골목 축제(음악, 영화, 음식)</li> </ul>
달뫼 마을의 달달한 거점 구축(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문화지도, 환경 개선</li> <li>· 역사 박물관</li> <li>· 달팽이 마을 슬로우 전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커뮤니티 센터에 구축</li> <li>· 아트 컨테이너</li> <li>· 노인 골목 벤치, 평상</li> </ul>

### 3.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정책방향

- 문화적인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공간조성이 먼저가 아닌 문화적인 사람들이 모여 고민하고 논의해 결정하는 과정 우선
- 문화재생사업 추진 전 지역에 대한 기초자원 등에 대한 예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사업 추진
- 문화적 재생사업에 있어 문화의 역할은 관계망 형성에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지형 파악 필요
- 주민들이 사업의 수혜자라는 인식 대신 사업 참여자라는 인식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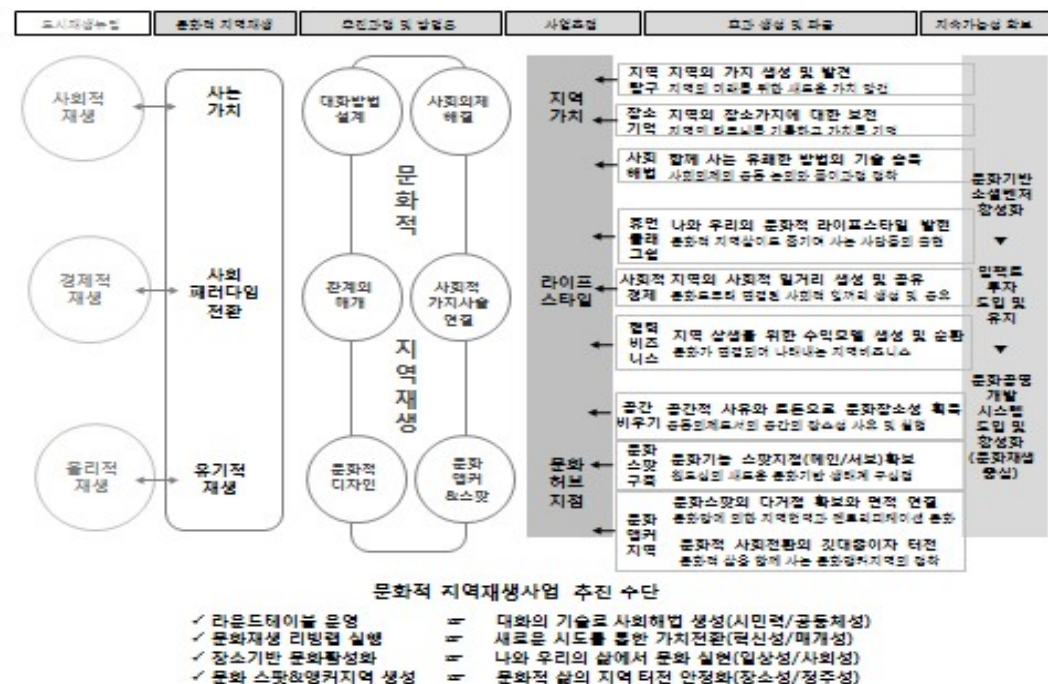
37)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사업실행계획서(2019, 광주광역시 남구청) 인용



- 문화적 재생사업 기획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나 사업 추진은 하향식으로 추진되는 문제 개선 필요
-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문화적 감각 제고를 위한 인식 전환 교육
- 문화재생사업 이후 사람이 남는 형태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함
- 주민들과 협업체계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문화적인 장소성 재구축
-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야 함
- 문화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의 여건 조성을 위한 후속 사업 발굴 등 추진
-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문화의 사회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게 사업 추진 필요
- 문화적 재생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아카이브 사업 필요
- 정부, 지자체 그리고 각 부서간 종합적 연계 체계 구축

#### 4. 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사업구조 모델

- 문화적 재생은 '사는 가치', '유기적 재생' 등에 중점을 둬
- 사업추진과정을 통해 '관계의 매개'를 가능하게 하는데 역점을 둬
- 무엇보다 문화적 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출처 :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19,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업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주요조점	문화적 사회의미 (Cultural Society)	장소기반 문화활성화 (Activation)	문화 및 내림 효과 (Anchoring)	문화영커지역 (문화에 근거하는 삶의 터전)
목표	포용, 합의의 재생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 발전	가치의 혁신과 시도 장소기반의 문화활동 및 정착	지역가치 변화와 도시적 전환 지역 기능회복 및 포괄 창출	문화적 사회 구성원 형성 지속가능한 지역정체 구조
주요방법	라운드 테이블 운영	문화재생 리빙랩 실행	문화 장소, 구역 통합디자인	지속가능 포도폴리오 구축
지원방식	사람 중심 지원 + 주민클래스 생성	프로그램 중심 지원 + 활동클래스 생성	장소 중심 지원 + 장소클래스 생성	지역 자생 구조 + 장소안정 및 정착
실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체 조직화(거주지/비주거지/공동체)</li> <li>✓ 장소의 지역성(공동체/비주거지)</li> <li>✓ 공간 활용 및 공동체</li> <li>✓ 지역의 공동체 형성(문화/사회/경제)</li> <li>✓ 지역주민의 참여(주민/비주민)</li> <li>✓ 문화공간 프로그램/이벤트 생성</li> <li>✓ 사회적 자본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거/수준 다각화 구축</li> <li>✓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li> <li>✓ 소셜미디어 및 문화비밀 일러스트</li> <li>✓ 문화비밀 일러스트</li> <li>✓ 장소기반 문화기획 및 활동 운영</li> <li>→ 사회 관계 및 가치관 실현 공동체</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시민의식 및 공동체성</li> <li>✓ 문화지역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문화공간(비주거지/공동체)</li> <li>✓ 문화비밀(문화비밀) 생성 및 운영</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li>✓ 문화비밀/수준 프로그램/이벤트</li> </ul>

출처 :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19,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5.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 단계<sup>38)</sup>

- 1단계 : ‘문화적 사회모임’ 구성
  - 포용·함께의 재생, 문화적·사회적 다양성 발현
  - 사람 중심의 사업 추진
- 2단계 : 장소기반 문화활성화
  - 장소기반 문화활동 및 정착
  - 프로그램 사업 위주 추진
- 3단계 : 문화 닷 내림
  - 지역 가치 변화, 지역 기능회복 및 사회적 효과 창출
  - 장소성 활용 사업 추진
- 4단계 : 문화앵커지역 조성
  - 문화적 구심점 형성, 지속가능한 문화적 재생 경영구조 구축
  - 자생 구조 조성

## 6. 광주지역 문화적 재생사업 정책 방안

- 지자체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필요
  - 지자체는 문화재생사업을 단순히 국비를 받기 위한 것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문화를 통해 어떻게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의 방향성과 추진과정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
  - 특히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속도를 자극하는 정책적 모델을 지양해야 함
- 행정 지원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 필요
  - 문화적 재생은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삶을 재생하는 것임
  - 행정은 문화적 재생사업이 동력을 얻고 추진될 수 있게 보조자 역할을 해야 함

38)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19,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용

- 문화적 재생사업 수립에 관련 주체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
-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관의 입장이 아닌 사업 대상지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자 우월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현장 활동가와 정책입안자 의견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임
- 보여주기식 예술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터무니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됨
- 지역 문화재단 등이 관여하기보다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 문화적 재생사업 단계별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

-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시 사업 추진단계별 문화정책 및 사업들과 연계
  - 문화프로그램지원 :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의 달 행사 지원, 마을 미술 프로젝트
  - 문화인력 지원 : 지역문화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인문 활동가 양성·파견
  - 문화시설 조성 지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활성화 지원, 생활밀착형 건립 지원
  - 컨설팅 지원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 ○ 문화적 재생정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 문화인력, 문화의 사회적 가치 제고, 주민 주도 문화재생이 중심이 되는 문화적 재생사업과 건물 리모델링 사업 중심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필요
- 문화적 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인 문화인력, 프로그램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간조성 사업에 연계될 수 있을 것임

#### ○ 도시재생사업의 획일성 지양

-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지,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해 매력 없는, 전국 어디든 똑같은 도시로 만드는 재생 사업은 이제 멈춰야 함
- 행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들이 건설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비슷하거나 연계한 사업 등 중복적이거나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음
-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권이 바뀔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명칭과 사업내용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이 필요함

○ 공간,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 장소성 발굴을 통해 발굴된 자원을 키우는 구조 형성 되어야 함
- 이벤트성 문화재생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 조성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는 문화재생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함
- 임대료 지원, 공간 리모델링 비용 지원, 창업 아이템 개발비 지원 등 공간을 통해 수익을 내고 마을로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간조성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 장비의 공유 공간형태의 공유센터 조성을 통해 전시, 공연, 발표회 등이 가능하게 환경 조성 필요
- 많은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며, 창조인력이 문화재생에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작업공간 등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임

○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해 시민신탁제도를 도입

- 시민신탁은 자산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10년 이상 장기간 자산을 위탁하고 지자체는 이를 관리할 자산관리조직을 설립해 저렴한 비용에 임대하고 수익을 위탁자와 나누는 것임

○ 중간지원조직 운영

- 중간지원조직 안에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함.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넉넉히 확보해야만 하고 이는 밀착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임
- 지역주민, 예술인들간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구성
-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게 운영 필요

○ 문화적 재생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 발굴

- 사업 종료 이후 성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과감한 후속 투자가 필요함
- 아직까지 사업전 계획만을 평가하여 일괄 지원하고 엄격한 정산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 사업이 종료되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임
- 따라서 성과를 확인하고 이것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성과 유지 확산 차원의 보다

자율적인 효율적 지원이 뒤따를 필요가 있음

- 사업 중심의 사고를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업 중심의 사고로 운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사업비 집행이라는 속도 중심의 사업과 행정 주도의 결과를 접하게 됨
- 사업비 기간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음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파일럿 연구사업 추진

- 사전 소액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적 재생의 구상을 추진한 후 본 예산이 점진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야 함
- 동시다발적인 사업이 펼쳐지기 보다는 파일럿 개념의 사업시행 후 단계적인 실행이 필요
- 대규모 문화재생산업보다는 소규모 문화재생산업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함
-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이 마을공간에 내재될 수 있는 구조 필요
- 지자체 예산으로 계획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 확대 필요

○ 문화적 재생사업을 통해 사람 키우기

- 단기간 진행되는 사업이 끝나더라도 사람이 남는 기획/사업을 위해선 그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유성을 더 확보해야 함

○ 문화기획자로 키나가는 청년들이 도시재생 현장에 결합해 마을주민과 협업하는 활동이 강화되어야 함

- 다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광주 밖에서 더 많이 영입해 지역 분위기를 전면적으로 환기해야 함
- 또한 우선적으로 '청년'기반 사업을 조성해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기획부터 진행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현재는 기획을 만드는 건 중장년층인데 사업의 하도급에서 권한 없는 업무만 청년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지역 기획자 중심 사업 추진

- 사업단 구성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함
- 가능한 지역 문화지형을 잘 아는 지역 출신 문화기획자 주도로 사업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선임되면 지자체에서 팔길이 원칙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현재 국토부가 도시재생에서 총괄기획자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처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문화단체들의 권력화 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문화재생사업에서 권력화 된 문화단체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있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활동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 문화인력 활용 DB 구축

- 각 행위주체들의 DB화가 필요하며, 그들과의 관계구조를 파악해야 함. 공간중심의 관계구조 파악을 통해 문화재생사업에서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어야 함
- 공공미술 예술가, 문화기획자, 관광기획자, 도시재생 전문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인력들의 이력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관리하고 이 이력에 맞게 보수를 책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이들을 투입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전문성이 확보된 문화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 ○ 광주의 지역 특성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맞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광주라는 잊혀진 근대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활동과 콘텐츠, 각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만들어내는 세 가지 방향이 동시에 문화적 재생사업에 스며들 필요
- 문화적 재생이라 해서 문화전시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님. 문화전시시설을 계획하더라도 소비자와 이용객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복합시설로의 발전을 그리고 사업 운영과 진행 방식에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운영계획이 아닌 전문 역량과 청년 참여를 고민해야 함
- 타 지자체의 사례를 따라가기 보다는 현재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움직임들,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거점을 구축해내는 것을 중요한 사업의 비전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

#### ○ 생활문화시설 확대

-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운영방식임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생활형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사업 대상지 내 다양한 계층(사회적 소수계층 포함)의 문화적 욕구 등을 파악해 사업 추진 필요

○ 문화적 아카이빙 사업 추진

- 문화재생산업에서 초창기에 많이 다루지만 이후 활용이 전무한 지역(대상지)에 대한 문화적, 인문적 아카이브 사업이 무엇보다 강화되어야 함
- 재생사업이 매개하는 과거와 미래의 시·공간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뿌리와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관련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

- 행정 내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달라 사업추진에 있어서 행정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문화적 도시재생을 지자체 문화예술부서 중심으로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해 참여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문화재생은 단순히 예술가뿐만 아니라 건축/도시, 인문, 지리, 교통, 환경, 복지, 관광 등 다양한 영역이 총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각 부서별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함

○ 문화적 재생사업의 지속성 담보 필요

- 문화적 재생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주민이 갖고 있는 심층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지역현실에 기초한 미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청년 인력이 유입되기 위해 사업지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기획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외부인에 대한 우정과 환대의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문화적 재생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됨
- 가시적 성과보다 비가시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생활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필요



- 보조금 중단 이후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연계사업 등 발굴 필요
- 특히 공간, 인력, 문화 프로그램이 서로 연계되는 구조를 갖게 초기에 사업의 방향성을 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적 재생 담당자 불박이 근무가 가능하게 인센티브 부여
- 문화적 재생사업에 있어 외부로부터 인력이 투입되기보다 주민과 주요 주체가 중심이 되는 전문인력을 구성해 이들을 키워가는 작업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문화재생의 지속성은 주민과 청년, 예술가들이 최고 결사체인 마을문화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을 통해 법인 구조가 되었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주체들의 비즈니스 모델(BM)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함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안정화시켜야 함
- 이들 기업들이 현상유지라는 지향점에서 벗어나 운영과 관리, 성장과 확장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 육성이라는 목표가 같이 계획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김효정(2014),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 국토, p. 43, 46
- 권태목(2017),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 활용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기본과제, p. 20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준교(2005), 도시의 경제, 사회혁신에 있어 문화도시 건설의 중요성 연구 - 문화도시의 이론적 고찰과 Glasgow의 문화도시정책사례를 중심으로, 2005 영호남공동학술대회, p. 161
- 송복섭(2016), [짧은 글 긴 생각] 도시재생을 위한 전환점, 국토, p. 124
- 안지연, 김보름(2018),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치와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 성북문화재단 공유원탁회의와 산림예술창작소 작은마음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4), P. 351
- 양진우(2018), 사회실험 도입을 통한 시정과제 해결방안 모색, BDI 정책포커스, (343), 1-12
- 이영범(2017), [기고] 문화공원 된 석유기지,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213220469535&outlink=1&ref=https%3A%2Fsearch.naver.com>
- 이나영, 안재섭(2014), 문화적 도시재생전략의 사례 연구 - 서울 서촌을 중심으로, 한국사건지리학회지, 24(4), p. 110
- 이병민, 김기덕(2014), 한국형 지역재생 개념수립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방안모색,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제48권 2호, p. 295
- 이상훈, 황지옥(2013), 도시재생의 정책배경과 패러다임의 전환, 국토계획, 48(6), p. 400
- 오덕성, 이기복, 유르젠 피치(2007),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7(6), p. 53
- 우신구(2014), 예술과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건축, 58(6), p. 39
- 윤정란, 여옥경, 장성화(2012),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비교 연구 - 전주시 및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6(3), p. 332-333
- 원향미(2014), 한국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의 사회적 역할 연구, 민족미학, 13(2), p. 184, 185, 196
- 조광호(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소개와 의미 있는 추진을 위한 제언, 지역문화진흥원, P. 3
- 추미경(201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 112
- 황희연(2014),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재생으로, 국토, p.3

Emanuela Cattaneo(2015), 『Towards sustainable wastewater management : Assessing future prospects and upscaling potential of the resource recovery sanitation niche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Utrecht University Faculty of Geosciences Master's Thesis, p. 50

Evans, G(2005), Measure for Measure: Evaluating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pp. 1-25



| 정책과제 2019-27 |

##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 현황 분석 및 미래 정책방향

Suggestions for Policy Directions of Cultural Regeneration  
in Gwangju City

---

인 쇄 일 2019년 12월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인 박 성 수

발 행 처 광주전남연구원 <http://www.gjeri.kr>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치타워 7, 8층(빛가람동)

TEL 061)931-9300 FAX 061)931-9393

인 쇄 처 (주)프리비

I S B N 979-11-90491-04-4 9330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